2012. Vol. 4

한 국 문 화 의 중 심

경기문화저널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그대가 없어
외롭습니다

한국문화의 중심 경기문화저널 2012. Vol. 4
The Journal of Culture in Gyeonggi

Contents

02 권두언_정상종(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컬럼 및 정책제언

06 문화원을 통한 문화예술소통_김영현
12 한국공연예술과 문화유산_서연호
17 마을만들기? 우리 마을 스타일 만들기!

경기도 문화원 기획사업 심층취재

22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_경기도지회
28 가평문화원의 문화가중계_가평문화원

경기도 문화인물을 만나다

34 문화원장님의 하루_수원문화원장 염상덕
39 나는 문화활동가다_고아름(평택) 정민정(남양주) 이병권(시흥) 황수근(평택)
44 지역문화행정가_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양원모
48 문화원 지킴이_광명문화원 아키모

경기도 역사문화 및 해외문화 사례연구

54 역사문화기행 1.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고양역사문화여행
59 역사문화기행 2. 호국의 길 따라가는 김포문화기행
64 해외 사례연구 캐나다_추운 겨울, 즐겁게 이겨내기 - 퀘백 얼음 호텔을 중심으로-

경기도지회 소식

발행일 : 2012년 12월(통권 제4호) | **등록번호** : 경기 사 50022(2011년 7월 11일) |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발행인** : 정상종 | **편집인** : 최영주 | **기획** : 장세영, 박해정 | **주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6층) | **전화** : 031-239-1020 | **팩스** : 031-239-3785 | **디자인&제작** : 홍익문화사 02-2274-8110 www.hongeeg.com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그림자, 이항대립 그리고 문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이전에 발간되어 왔던 소식지 차원의 발간물의 성격을 탈피하고, 〈경기문화저널(이하 저널)〉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을 시작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분석하고, 그것이 경기도 차원의 문화정책과의 접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지회 차원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고, 그것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전개해 왔으며,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대안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정 상 종**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잡아내는 중심에 있기에 사업의 성격이 항상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려'있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 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천착하는 것이 때로는 나이 들어 보이고 구식으로 보인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역사를 지나간 과거만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때로는 암울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 벅찬 순간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 지금, 즉 현재가 되어 있고, 지금의 순간순간들이 모여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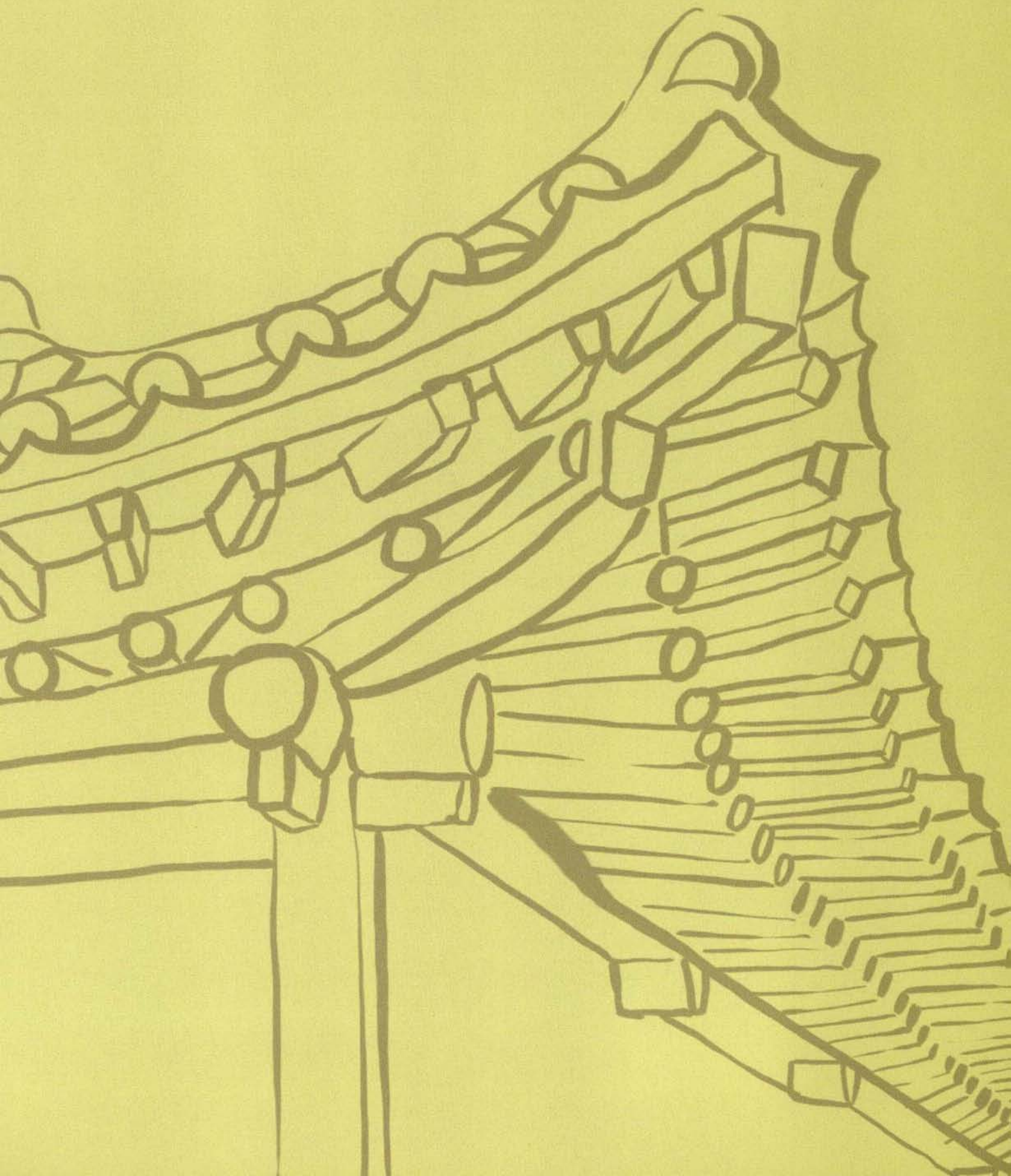
세계적인 사회학자 뒤르켐은 문화를 '많은 상징들과 기호들이 이항대립으로 구성된 상징체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 사랑과 증오,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이 인간의 감정 구조와 가치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끊임없는 굴곡의 역사, 즉 문화의 이항대립이 지금의 문화를 형성한 기본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원리와 구조가 현재의 삶의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이항대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긍정적 방향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의 원리와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중심에 문화원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대립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과거의 가치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도, 현재의 시대적 흐름이 옳다고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열려'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문화저널>은 단순히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의 사업을 소개하는 소식지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현재 사업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사업의 현재적 의미를 끊임없이 고찰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적 문화 사업을 위한 방법론적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저널을 통해 개진되고, 다양한 문제제기를 담는 거대한 그릇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대안적 성찰이 담긴 진정한 의미의 '저널'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위하여 건배!

Binary opposition 二項對立
Culture Shadow
文化



한 국 문 화 의 중 심

예술경영저널

컬럼 및 정책제언

문화원을 통한 문화예술소통_김영현
한국공연예술과 문화유산_서연호
마을만들기? 우리 마을 스타일 만들기!

미래의 전통문화와 만나기

김영현(유알아트)

지역에서 문화원들이 갖는 무게감은 일상의 피로감만큼이나 크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 왔다. 그러한 과정이 이제는 과중하고 일반적인 업무 영역으로 해석되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다.
다양한 문화주체와 담론, 정책들이 만들어 지면서 그동안의 문화원 고유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정체성의 혼란이나 위기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랜 시간의 가치와 더불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온 문화원. 이제 그 문화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 가야 한다. 전통과 향토, 토착이란 단어들의 나열이 아닌 새로운 전통과 미래의 전통이 앞선 단어들과의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 그 새로운 등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미래와 만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일상적 삶과 분리되어져 박제화 되거나 단순 보존이나 보전 되어져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 내는 의무가 아니어야 한다. 의무로 남는 과제가 아닌 우리가 즐기며 살아감의 소용과 활력이 되어 질 것들이 실험되고 만들어 져야 한다.
오늘의 일상이 미래가 되는 문화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문화의 주체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문화원의 모습을 꿈꾸고 제안 해 본다.

"전통에서 오늘을 살아갈 해답을 찾고 미래를 책임지는 오늘을 산다."

"경제란 석탄을 아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 불타고 있는 동안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다."
- 랠프.W.애머슨

옆에서 전제한 두 개의 글이 앞으로 본인이 이어갈 글들의 전부이자 회귀점들이다. 미래의 전통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현재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와 현재에 과거가 묻어있는가를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지역의 일상은 수천 년의 시간을 담고 있다. 불과 몇 십 년에서 몇 백 년에 이르는 근대화의 과정이 오래된 시간을 지우고 있다.

시간이 지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온 경험적 삶의 토대를 지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거기에는 사람과 시간과 환경이 준 도전과 응전의 결과들이 응축되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내며 과정의 소중함을 자신도 모르게 밀쳐내고 있다.

이 짧은 시간의 지나침 속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재앙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본질적인 자연의 섭리와 분노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조상들의 삶의 궤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억마저 사라져 갈 손의 기억과 삶의 기억들을 되찾고 기억하게 해야 한다. 모두 사라지기 전에.

토착적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과 사람과 자연이 버무려져 있다. 그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들춰내고 각각의 가치를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를 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덧대기를 해야 한다. 과거나 토착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에서 스스로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리와 방법들을 전해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 구조에서 돈이 아니면 삶을 살수 없게 만드는 참담한 현실을 어디에서나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의 구조를 벗어나 토착적 삶의 원형과 만난다면 삶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조상들의 삶의 방식에 묻어나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토착적 삶의 기술이나 원형들만으로 미래를 살아갈 방법들이 찾아질까?

답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토착적 환경이 주는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고수되어질 필요는 없다. 가감할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새롭게 진화 시켜야 한다. 진화의 방법에 대해 편리함과 순간적 경제성만을 이야기해서는 진정한 답이라 할 수 없다. 석탄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태우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석탄이 불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 무엇,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나 시스템으로만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아닌 삶의 문화라는 측면의 접근이고 답일 것이다.

우리는 요즘 적정기술이나 대안적 삶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환경이나 경제, 또는 공동체에 대한 영역까지로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단위들과의 만남을 쉽게 가져 갈수 있다. 하지만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지 깊게 들여다보고 선택해야하는 지점들이 있다. 그 접점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책임지는 태도이자 과제일 것이다.

우리가 고민의 출발점에 두어야 할 명제들

미래의 전통문화 발굴을 위한 전제

무엇을 미래의 전통이라 할 것인가?
미래의 전통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미래의 전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시스템 강화

미래의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방안

미래의 전통문화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자원조사
미래 전통문화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지원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
일상의 영역에서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영역으로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방안 마련

우리가 선택할 미래는 있는가?

2011년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지구의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일본 원전이 무기력하게 파괴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를 다시 보게 되었다. 우리의 '자본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라 한다. 전 세계의 75%는 아직도 바이오에너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의 60%는 아직도 나무를 때서 난방과 취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실정은 수입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자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그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려 한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립적 에너지원을 활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현실을 더듬다보면 그러한 현실은 삶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지역에서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냉방에서 주무시거나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아니 태반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하기에는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것을 그들의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네 일상이 자본이나 세상의 흐름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습을 상기할 수 있다. 스스로의 밭에서 난 것을 먹고 스스로가 해오던 땔감들을 요긴하게 사용하면서 살던 모습이 바로 엊그제 같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 보편적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중앙이나 지자체의 지원구조에 의존하거나 척박한 현실을 탓하며 살게 되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며 다른 대안과 만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근간의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은 조금만 노력을 더하면 전혀 다른 세상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화목공정이라는 국가적 지원구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량형 화덕을 보급하고 있다. 글로벌 석유 회사인 쉘 역시 아프리카에 개량형 화덕을 보급하였다.

아마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중국의 사막화는 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기에 생겨난 움직임이다.

우리는 가마솥화덕이나 온돌 등을 매우 소중한 전통자원이라 말한다. 가마솥화덕을 이용해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면 그 맛이 다르다고 한다. 특별한 날이나 공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가마솥 화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실제 열효율이 20%에 불과하다. 각 나라의 화덕이나 난방시스템을 연구하는 집단들이 형성되었고 효율이 좋은 화덕이나 난로 또는 또 다른 방식의 난방을 연구하고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적정기술 화덕은 100%에 가까운 열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100%의 열효율을 얻으면서도 기존 연료의 20%만 사용하면 된다. 나무 10개를 쓸 것을 나무 2개만 때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잔가지들을 써도 될 정도이니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기에는 안성맞춤일 것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그러한 화덕과 난로를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굳이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도록 보급하고 상호 보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나 기술을 "적정기술"이란 이름으로 불러준다. 이러한 행위적 시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일상이나 생활의 면면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활문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단지 에너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만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이 선택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 되어간다.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일인가에는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다. 실패한 사회주의나 실패한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실패한 지구의 오늘을 보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실패한 지구의 모습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미래는 우리만의 미래가 아닌 후손들의 미래이다.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박탈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우리는 오늘을 사는데 고민을 더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미래를, 오늘의 현실이 미래의 전통이 될 수 있는가에 답하고 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 선택하는 소극적 개입이 아닌 적극적 개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근래에 누렸던 편리함과 욕망의 찌꺼기들을 벗겨내고 후손들에게 새롭고 싱싱한 미래의 속살을 만나게 해줄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살펴보기. 미래의 전통을 위한 답 찾기_인간중심의 기술, 적정기술로부터

1. 현지의 조건과 전통기술에 근거한 적정기술.
2. 전통기술 가운데는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들이 많다
3. 근대적인 진보를 거절하진 않지만 고대의 방법이 더 알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인간의 필요를 바탕으로 현지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해서 적용되는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적정기술이란 용어에 포함된 '기술'이란 부분 때문에 많은 비기술 분야 일반인들이 어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적정기술의 핵심은 '적정'이란 부분에 놓여 있다. 어떤 특정기술이나 제품이 '적정기술'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인간과 현지의 환경을 고려한 기술과 제품이 '적정기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적정기술의 원조는 인도 독립영웅인 마하트마 간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소금세에 저항하여 소금을 직접 만들고 영국의 면직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에 대항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직물을 만드는 저항운동을 전개했는데 그의 스와라지운동의 정신은 적정기술이 주창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E. F 슈마허를 통해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로 구체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적정기술이라 불리는 개념의 원조이다. 슈마허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통해 적정기술이 가진 개념의 포용성을 특정 기술이나 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성을 가진 사상으로 발전했다. 적정기술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대량생산, 대규모발전, 소비중심주의대신 소규모생산, 분산발전, 생태학적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기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적정기술 관련자료발췌)

사례. 미래의 전통을 위한 답찾기 _사람과 시간으로부터

가고싶은 섬 매물도 - 하루를 살아도 매물도 사람처럼

가고 싶은 섬 매물도 사업 중 이미지 텔링과 휴먼웨어 파트의 사업들은 문화부의 "가고싶은 섬 "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내용으로 섬주민들의 일상에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자원들을 토대로 구성된 내용들이다.
이제는 잊혀지거나 외면당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와 그 메세지를 중심으로 새로 드러나는 가치들을 이미지화 하거나 여행자의 눈길과 사는 사람들의 눈길의 접합점을 찾아 낸 것 들이다

담양창평 슬로시티 - 주민생활문화교실 달팽이 학당

역사, 문화자원이 많은 담양의 창평 슬로시티에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을 만들어 내고 미래의 전통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보여준다.
전통적 자원과 새로운 적정기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달팽이 학당과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담양창평 슬로시티의 전 지역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경계를 넘어 관객을 즐겁게 하는 공연예술

서연호(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구촌의 공연예술과 관객

지구촌의 공연예술과 관객

교통수단과 매스미디어 같은 첨단과학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는 온 지구에서 벌어지는 문화현상들을 빠르게 접촉할 수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 문화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일부 계층은 과거부터 전승되는 문화를 선호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 유행하는 문화에 감염되듯이 동화되기도 한다. 과거와 현재, 지역과 지역, 인종과 인종, 분야와 분야, 장르와 장르 사이의 교류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문화를 폭넓게 공유하고, 또한 디지털 매체로 소통하는, 이른바 글로컬시대, 디지로그시대에 살고 있다.

2012년 10월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그 일대에는 8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1977-)가 공연하는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보려했던 관중이다. 오늘날, 이른바 해외에서 한류로 통칭되는 K

팝의 확산과 더불어 싸이의 이번 메가 히트는 '번지는 산불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싸이의 국적은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국적, 국경이라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그의 노래는 온 지구촌의 호응과 관심을 끌고 있다. 그의 노래가 얼마나 흥행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다른 가수들의 노래와는 달리, 대중을 파고드는 폭발력이 놀랍다. 이번 싸이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공연예술의 전파와 충격은 글로컬시대, 디지로그시대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공연예술은 현장에서 보아야 제격이다. 공연예술의 현장성이야말로 현대성을 표상하는 영상·복제시대에 대응하는 존재성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주위를 돌아보면, 영상·복제시대라는 개념도 그 범주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을 또한 지나칠 수 없다. 복합과 융합의 기술과 정신이 발달하고 있다. 앞에서 디지로그에 주목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2012년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세계에 중계된 런던 올림픽의 기억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다.

특히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벌어진 공연예술은 예술 강국인 영국의 실력과 수준을 그대로 웅변하는 감동을 주었다. 우리가 런던의 현장에 참여했다고 해도 그렇게 사실적이고 생동하는 장면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통신위성 디지털(CSD)이 이루어낸 글로컬의 놀라운 성과이다.

이제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의 '지구촌 공연'(스포츠 등), 또는 '지구촌 공연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지구촌 관객'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누려온 공연예술의 현장적 즐거움(이른바 아날로그식)과 더불어 통신위성 디지털에 의한 지구촌 관객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공연예술의 실정

날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공연과 공연예술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날 공연은 주로 공연예술을 가리켰다. 오늘날의 공연은 예술만이 아니라 행사, 축제, 이벤트, 발표회, 퍼레이드 같은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연의 종류와 의미 역시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연은 예술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공연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즉 기획자, 제작자, 공연장운영자와 관리자, 홍보담당자, 매표담당자, 영상관계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참여하는 분야가 되었다.

공연예술에 대한 전통적 용어는 굿, 짓거리, 놀이(놀음), 재담, 연희다. 지난날 공연의 담당층은 서민이었지만 그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한자이든, 한글이든 자신들의 행위를 기록할 수 없었다. 서낭굿, 마당놀이, 탈놀음, 재담굿, 판놀이 같은 용어들이 그것이다. 교육을 받은 상류층은 공연내용을 한자로 기록했다. 노래하고歌 춤추고舞 연주하는奏 것을 연演이라 했고, 놀고 짓거리하는 것을 희戱라고 했다. 연희라는 용어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잡기雜技, 잡극雜劇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잡다한 놀이와 공연들을 지칭했다.

공연 또는 공연예술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연희는 주로 전통적(전승적, traditional)인 공연예술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은 매우 혼란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전통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서양에서는 '훌륭하게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전승'을 유산(heritage)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공연은 퍼포먼스(The Performance)라는 용어와 더불어 매우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그 범주가 지구촌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은 퍼포밍 아츠(The Performing Arts)라는 용어와 더불어 전통적인 장르와 첨단적인 장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공연예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지나칠 수 없다. 공연과 교육, 공연과 매스 미디어, 공연과 콘텐츠, 공연과 이벤트, 공연과 문화관광 등은 상호 밀접한 관계다. 공연은 청소년들의 학교수업 보충교육으로서,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의 사회교육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프로그램은 공연의 발전에 기여한다. 공연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보급되며, 매스 미디어는 공연을 통해 풍부한 내용과 가치를 발휘한다. TV, DMB, CD, DVD 같은 매스 미디어가 방영하는 작품들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

모든 공연은 콘텐츠 개발의 원형이자 원동력이며, 콘텐츠는 공연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충족시킨다.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같은 것이 그 사례다.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가 '특별한 공연'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이벤트는, 현재 문화산업적인 축제를 일컫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이벤트의 내용은 대부분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춘천마임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새 자동차전시, 패션 쇼, 아트 마켓, 스키장 개장식, 경복궁의 조선왕조회례연의 재연 같은 이벤트들이 이에 속한다. 세계 어디를 여행해도 현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전통공연들이 여행자들을 관객으로 맞이한다. 가장 짧은 기간에 한두 번의 공연으로 현지의 문화적 특색을 감지하게 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공연이다.

전통과 창조

우리는 전통문화를 문화재文化財로 관리, 응용해왔다. 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보존과 보호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통, 특히 정신문화와 비非물질문화의 성격이 짙은 문화재의 국가보호는 '법규에서 제외된 문화재'들에 상대적인 차별을 갖게 하는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덜 중요한 문화'라는, 일반인들의 차별의식은 끝내는 숱한 문화재들을 망각케 하고, 생활 속에서 사라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문화재 보존의 정책이 필요한 데는 이런 사유도 공존한다. 여기서, 지정문화재만이 아니라 도처에 존재하는 비지정문화재들도 전통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그해 연말부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지정사업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전통문예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거국적인 노력의 일단을 시사한다. 중요무형문재 지정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양주 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갓일, 판소리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유형문화(물질문화)에 대하여 무형문화(비물질문화)는 그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사람이 곧 문화재인 셈이다. 문화기능론에서 래드클리프-브라운(Radcliffe-Brawn, A. R.)이 지적한 대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예능 보유자保有者로 규정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보유자는 전통문화 전승의 주체로서 교육과 공연과 이론연구를 실제로 실연實演, 실천實踐하는 기능인이다.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실연實演을 통해서만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문화'이므로 원형原型 그대로 보존되거나 계승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공예품은 유형문화재이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기술은 무형문화재이다. 무형문화재의 실연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다소의 변화, 변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형(개념)은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기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형문화재의 이러한 특징을 단점短點으로만 속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장점, 도약대跳躍臺로 활용해야 한다.

원형의 변질과 망실이 아주 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문화재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무형문화재로서의 목록해제目錄解除는 이런 개념과 상관된다. 표현방식, 제작방법은 시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금씩 변화한다고 해도 문화재가 지닌 근본적인 정신과 이상, 예술적 가치지향을 잃지 않으려는 순수한 노력 속에서 원형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형이야말로 문화발전의 원천源泉인 것이다. 아울러 원형의 진실성에 대한 판별은 해당

분야의 고도한 전문적 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대한 국가보존책을 분명하게 수립한 점에 역사적인 의의가 있지만, 원형과 전승자에 국한局限된 지정방법, 문화재청에 국한된 중요무형문화재의 관리, 종목 유파類派의 불인정, 지적재산권 보호가 불가능한 분류체계, 현대적인 문화유산을 폭 넓게 수용할 수 없는 한계 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보호법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문화 전반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선양할 수 없다.

전통을 창조의 도약대로 삼으려면,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C.)가 지적한 '정신의 구조'와 터너(Tuner, V. W.)가 중시한 '문화의 상징성'을 진정으로 이해, 파악해야 한다. 어떤 양식의 문화든,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신의 구조와 상징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그 문화를 토대로 한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창조를 시도했다고 해도, 온당한 창조로 평가받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문화에 관한 폭넓은 해석력이다. 기어츠(Geertz, C.)의 해석학이 중시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실제에서 작용하는 것은 화이트(White, L. A.)가 언급한 기술 및 기술체계의 계승과 첨단적인 활용 및 지속적인 발전이다.

서양에서는 천재론天才論이 우세하다. 그들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문화전승(tradition)과 문화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정의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이른바 천재라는 인물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문화유산의 상속자相續者들로서, 그의 성장 배경에는 과거부터 전문성을 이어온 가계, 스승, 친구, 예술가, 대학, 왕가, 전문단체, 후원자, 문화동반자로서의 애인, 관객, 교회 및 훌륭한 공연장 등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문화천재는 혼자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창조의 정신, 방법, 기법, 기술, 체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천재적인 문화창조는 가능해진다.

상징문화론자의 한 사람인 터너는 치료의례에 큰 관심을 두고 상징을 논의했다. 상징이란 신체적·도덕적·정치경제적인 힘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서, 상징의 힘은 부족사회에서는 통과의례의 경계(성인식의 경우, 의례 도중의 어른도 아이도 아닌 상태) 및 역사적인 경계(사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상태에서 현저하게 발견된다. 또한 상징은 무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응해 의미가 변화해 간다는 사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은 잠시 잊었던 상징을 상기하여 그것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연예술의 감상과 평가

모든 공연 또는 공연예술은 사회적인 행위인 동시에 폭넓은 사회성을 지닌다. 공연은 수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 감상, 평가되고 있으며, 가능한 대로 전문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작품은 사회적으로 집단성, 의식성儀式性, 상황성, 중층성重層性을 지닌다. 집단적인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다. 의식성은 제의성, 축제성, 원형성, 공의성公儀性 같은 개념과 상통한다. 작품의 상황성은 동시대성, 지역성(특수성), 민중성, 정치성, 보편성 같은 개념과 상통한다. 중층성은 공연의 역사성, 적층성積層性, 복합성, 구조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작품의 창작자·제작자·경영자는 공급자의 입장이고, 관객·청중·구경꾼·비평가는 수용자의 입장이다. 공급자와 수용자의 입장은 수시로 뒤바뀐다. 우수한 공급자는 훌륭한 수용자가 되고, 지혜로운 수용자는 탁월한 공급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공연예술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장르와 장르, 창작방법과 수용방법 사이에서 서로 빈번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말 그대로 문화의 전승과 전파, 창작과 수용의 굴레를 반복하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체험행위를 감상이라 한다. 작품을 대상으

로 하여 그 감각적인 미질美質을 맛보고, 나아가 기술적·정신적 구축물인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그 제작 기법을 평가하며, 거기서 끊임없이 의미를 탐구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비교 고찰하면서 전제적인 사상을 파악한다. 감상은 감각적이고 기술적, 지적인 다층적 이해의 역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감각성의 입장에서 보면, 미적 체험은 시간적인 것이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지성의 입장에서 보면, 미적 체험은 일종의 발견이다.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정한 목적에 국한된 행동이 아니라, 온갖 가능한 발견을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미적 체험은 만남이며 '열린 체험'이다.

예술의 아름다움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쾌락)은 일시적이고 외면적인 데 한정되지 않는다. 심각하고도 어두운 내용의 작품에서도 얻어지는 심층적인 즐거움에 비유할 수 있다. 발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 발견은 우선 대상의 특징적 발견으로부터 체험 주체 자신의 발견으로 연결된다. 온갖 가치를 포괄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작품을 시청하는 행위는 일종의 소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물을 낭비하는 소비와는 달리, 이 소비는 감상에 해당한다. 감상의 유사어로는 직관, 향수, 관상, 수용 등이 사용된다.

가다머(Gadamer, H.)가 지적한 대로, 예술 작품은 감상자(체험자)를 일순간에 생의 연관 밖으로 끌어냄과 동시에, 그의 생활 전체와의 관련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예술 체험은 넘쳐흐르는 의미로 채워져 있으며, 그것은 특정한 내용이나 대상에 부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의 의미 총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미적 체험은 언제나 무한한 전체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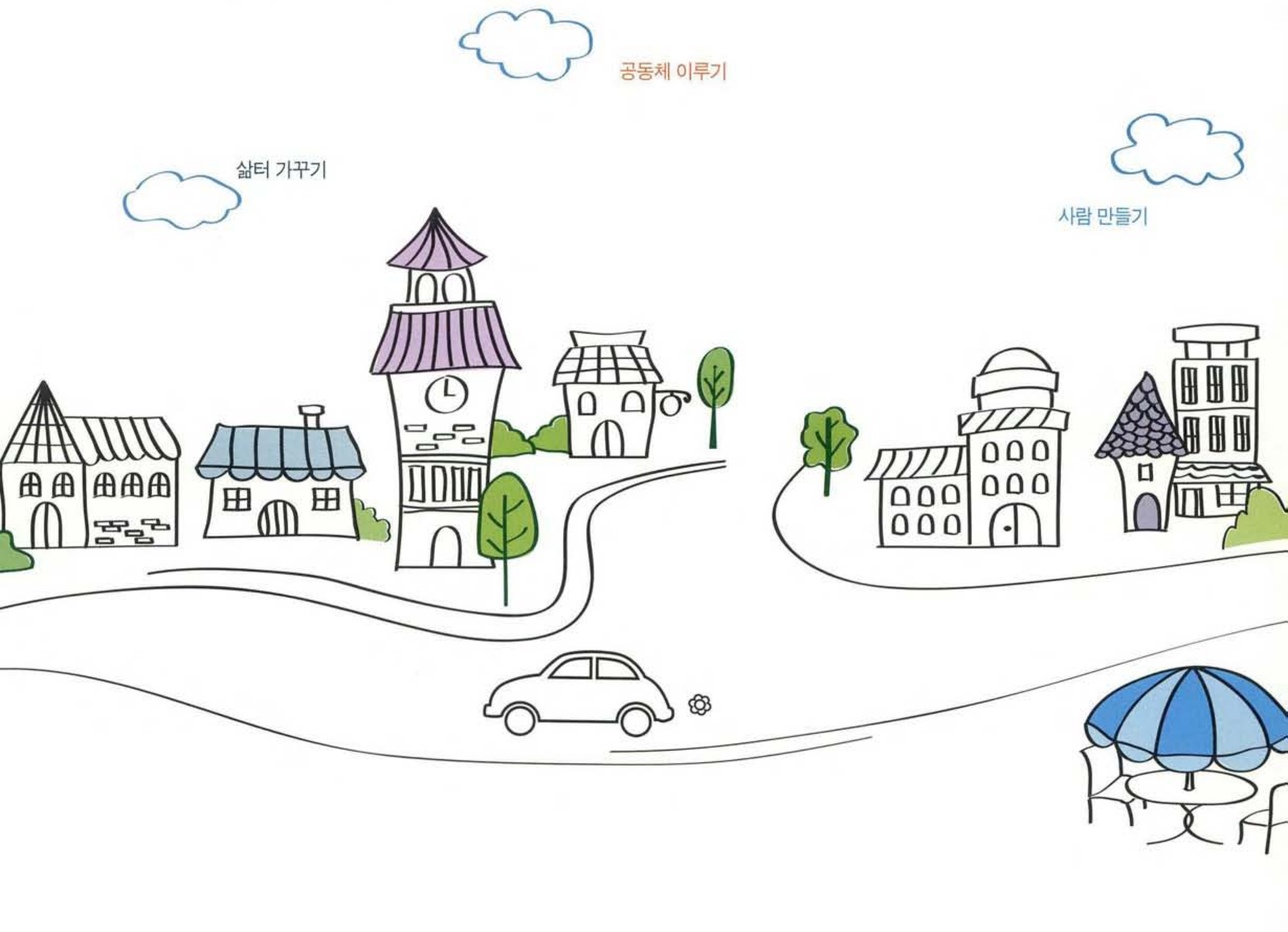
공연예술학(The Performing Arts Studies)은 학문으로서의 전체성과 엄밀함을 갖추고 원론적인 탐구에 치중하는 것이라 한다면, 비평은 작품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해서 현상의 의의를 평가하는 일이다. 넓은 의미로 공연예술에 관한 담론(discourse)이다. 비평을 일컫는 용어 가운데, 평론은 풍부한 이론을 펼치는 데 반해, 시평은 단편적인 감상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공연예술은 모든 경계를 넘어 관객을 즐겁게 한다.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며, 지역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시대의 차이를 뛰어넘으며, 지식의 유무에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빈부·지역·시대·지식에 갇힌 공연예술은 일시적으로 문제작이 될 수는 있어도 명작이 될 수 없다. 특수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이런 경계를 초월해 인간의 보편성을 탁월하게 표현했을 때, 비로소 온 인류의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인 진정한 즐거움이 되려면 우리 삶의 진실과 미래의 꿈과 언제나 만나는 작품이어야 한다. 일시적인 감각과 유희, 소비와 마취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공연이어서는 안 된다.

마을만들기?
우리 마을 스타일 만들기!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비롯해 일터와 쉼터, 또는 자주 들르는 장소나 오고가는 거리를 모두 포함한다. '마을'이란 말에는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마을사람들(주민, 시민, 이용자)'과 이들이 이루고 만들어내는 '마을 공동체'와 '마을 문화'와 같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마을만들기'는 마을삶터를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가꾸어 가는 '삶터 가꾸기', 공유공간에서 벌어지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이루기', 개인공간에만 집착하던 개인들이 진정한 주민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만들기'를 의미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마을만들기'가 주거환경개선이나 하드웨어사업에 치중해 왔다면, 요즘엔 '마을 공동체 만들기'로 교육, 복지, 일자리, 문화 문제 등을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려는 추세이다.



공동체,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깊은 사회적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의식'이다. 이제는 주민이 마을을 스스로 고치고, 꾸미고 자기공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민들이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러한 '주민의식'을 갖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에선 성미산 마을만들기를 '중산층 운동'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이 있으니 가능했던 것이라는 뜻이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협동의 여유가 없고, 자가거주가 아닌 세입자들의 참여율도 낮은 편이다. 교육,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잦은 주거 이동 역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어렵게 한다. 마을만들기가 잘 진행되어 유명해진 마을조차 재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마을주민간의 의가 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을공동체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1인 가구가 함께 밥을 먹고, 마을 텃밭을 가꾸고, 공동 육아를 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마을지킴이가 골목길을 지켜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동네 밴드를 만들고, 같이 영화를 보고, 장터를 열고, 마을축제도 벌인다. '마을공동체'의 형태는 제각각이다.
강릉에서 10년간 마을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권상동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협동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00개의 마을에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사례도 1,000개, 문제점도 1,000개, 해결방안도 1,000개다. 천천히 오랫동안 해야 한다. 무수히 많은 중간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수히 많은 좌절들, 실패들을 할 거다. 마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실패냐?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마을이 만병통치약이다? 큰 그림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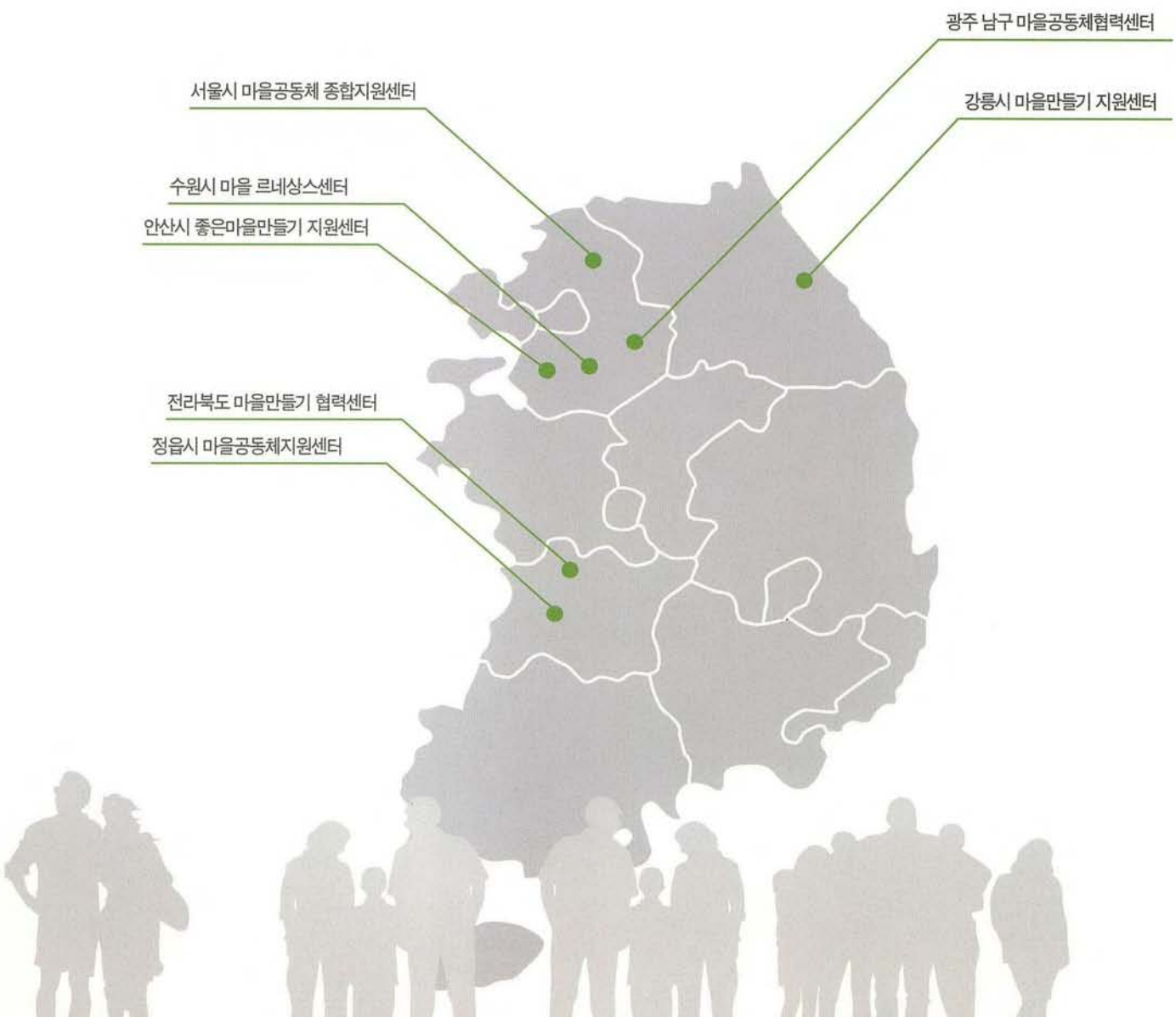
마을만들기에는 모범 답안이 없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때부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사람이 모여 생겨난 마을이 있고, 도시 계획으로 인해 집(아파트)이 지어져 마을이 된 곳도 있다. 사람들이 그 곳에 거주하는 이유도 제각각이며, 마을에, 마을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마을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주민 주도형이어야 한다.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이 없어지는 방식이 아닌 주민의 욕구에 의해 문제제기 되고, 그들의 노력으로 사업이, 아니 생활의 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강남스타일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스타일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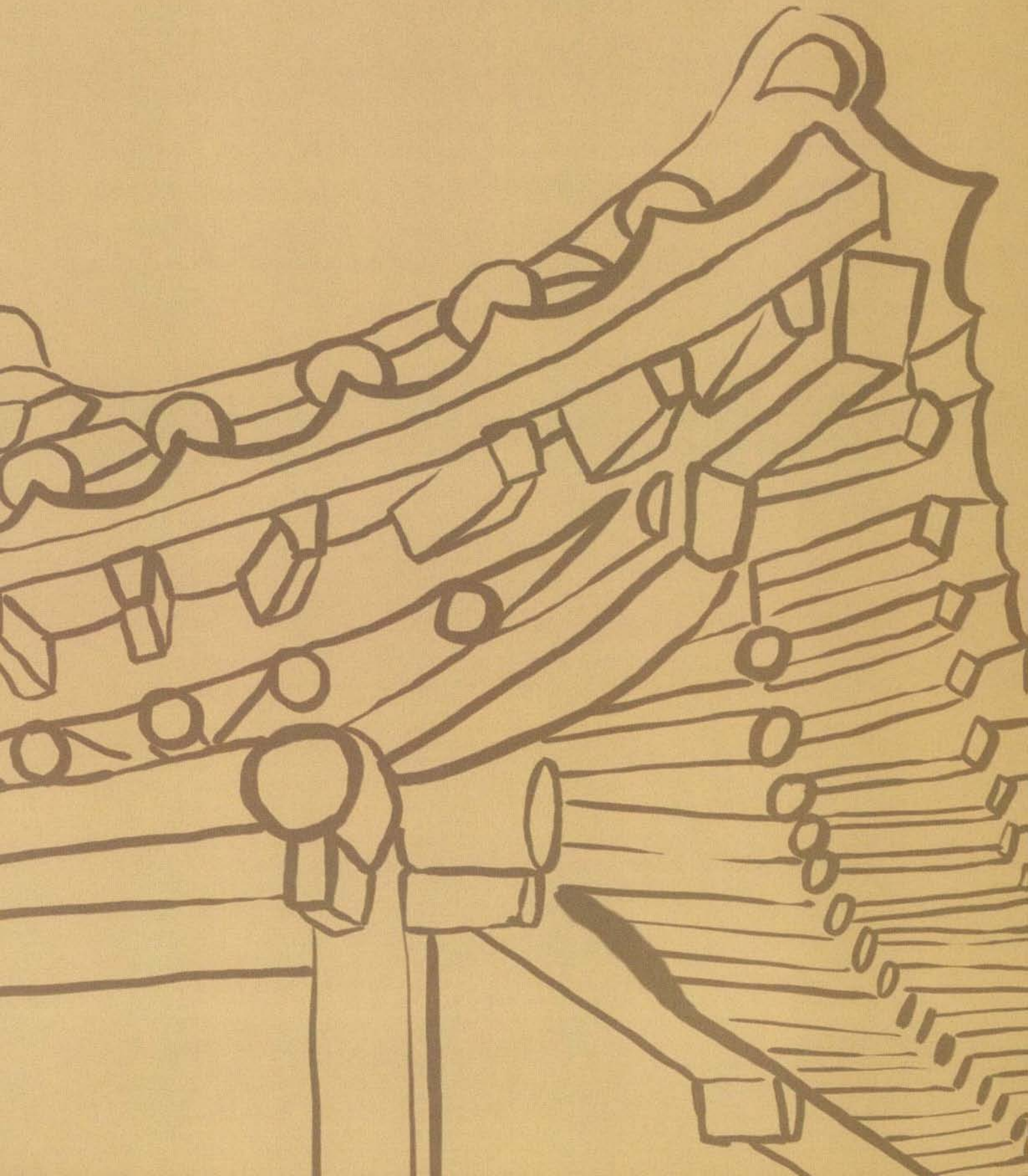
Tip!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약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국 마을만들기 리더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
지역 마을만들기 활동내용 공유와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마을만들기 추진 지역 현장 방문 및 상호학습

이 외에도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광주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센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정읍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많은 정보와 사례를 얻을 수 있다.





한 국 문 화 의 중 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원 기획사업 심층취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_경기도지회
가평문화원의 문화가중계_가평문화원

첫 번째 이야기,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네트워크와 소통의 구심체로서의 확고한 자기 역할에 대한 성찰

문화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예측하는 미래를 다르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처장을 만나 처음 들은 말은 예상했던 답변을 훌쩍 벗어나 있었다. 그러면서 두 장의 A3크기의 브로셔 두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있는 두 명의 탁월한 활동가가 다 했죠. 그래서 항상 고맙고,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굳이 따옴표로 강조했다!)의 방문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밑바탕에 두고 그것을 문화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 지역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그 지역의 특징이 되고, 그 지역의 산, 들, 강 등 자연환경이 사람과 만나 추억이 되고, 그것이 켜켜이 쌓이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곧 그 지역의 정체성인 것이다.

문화를 '삶의 형식이다'라고 정의할 때, 문화는 과거 우리의 부모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자연환경이 한데 어울려 만들어진 역사이자, 그 역사에 근거한 정체성을 문화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 또한 그것이 미래와 연결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과거의 문화유산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반영된 것일 테고, 그 삶의 양식은 곧 그 당시의 문화라는 말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 현재의 문화와 단절된 것이 아닌,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봐야만 한다.

현재의 문화 속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과거의 문화는 이미 현재에 문화적 양식(이것이 곧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다)이다. 그 정체성을 살려내는 일을 바로 문화원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으며, 이미 50여 년 전 부터 언제나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

도지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문화원의 수는 총 229개이며, 16개의 도지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에는 각각 31개 시, 군 문화원에 한 개의 문화원이 존재하며, 이 31개 지방문원간의 1)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와 2) 소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있다.

경기도지회의 모든 사업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향과 목표에 따라 다양하고 정교하게 전개하고 있다.

사업은 정책적 고려 위에 각 문화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연합회의 단독적인 개별사업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모든 사업의 성격과 내용은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의 사업성과의 총화로 연결되어야 하며, 각 문화원간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지회는 문화트렌드와 정책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항상 노력한다.

지역의 문화적 상황과 광역단위의 문화적, 정책적 흐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각 문화원에 광역단위의 문화흐름과 트렌드를 발신해야 하며, 여러 창구를 통해 되먹임(Feedback)된 내용을 분석, 조율하여 다시 재발신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즉 현대적 의미의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경기도지회는 31개 시,군 문화원의 연합체이다.

각 지방문화원에는 정말로 치열하게 지역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건 각 지역

의 다양한 색깔을 위해 고민 하며 오랫동안 활동해 온 베테랑들이 모여 있다.
아무래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의 시선으로 도지회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처에 불빛은 꺼지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각각의 사업들, 그리고 문화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들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도지회는 항상 고민에 고민을 더한다.
왜 이 사업을 하고, 무엇을 위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찾기 위한 시도, 그리고 그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가는 연장선상에 도지회의 모든 사업이 펼쳐져 있다. 앞서 말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극대화'가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

미션이 명확해야 한다.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얼마나 정교하게 규명하느냐가 중심이다. 지방문화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문화원연합회의 성격이 규명되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큰 틀은 바로 지방문화원의 규명과 사업의 분석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세요.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라고 어느 시인은 말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게으르지 않게 하는 일 하나 하나에 발자취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진지하고 차분한 태도.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경기도지회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2012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요사업

*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

경기도 문화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1년 실시한 문화원 실태 및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심층 분석 작업 실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문화 네트워크 시스템 확립

경기도 시, 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경기도 고유의 문화유산원형을 각 지자체의 특화된 문화자원으로 개발, 경기도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대와 보존, 활용의 방법 모색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경기도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경기도 문화원 역량강화 사업

직원실무연수: 지역문화매개자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원 주요 활동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연수

문화가족합동연수: 경기도 내 문화관계자(시, 군문화원 원장,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각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 향토문화연구 및 콘텐츠 제작

경기향토사학 발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경기도 향토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 논문집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보급: 경기도 역사문화원형을 장르별, 지역별로 개관하고 악보, 문헌, 도상, 음향 및 음반, 교재, 지도, 악기 등을 콘텐츠화, 경기도 역사문화원형 DB 구축 사업

* 제9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경기도 내 각 시, 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 고취

*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아름다운 동행"

경기도 내 다문화 가족 및 이주노동자에게 전통연희공연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의 다양성 소개 및 공연 관람의 기회 제공.

2012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권역별 어르신 문화축제」
요즘 할매 요즘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 교육**

경기도 내 4개 시, 군 문화원의 연계사업으로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를 통해 익혀지는 건전한 재미와 경쟁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성 교육 및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현대 예절 교육

*** 경기문화저널**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의 문화 사업 소개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삶, 경기도 문화원의 미래를 담은 저널 발간

*** 경기도 시낭송의 밤 "경기도, 시를 노래하다"**

경기도 의원 및 문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경기도 대표시인의 시를 매개로한 인문학적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 문학적 정체성 및 저력을 발견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림

*** 사업분석 연구서**

경기도 시, 군 문화원의 주요사업을 심층 취재함으로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도민들에게 홍보, 경기도 향토문화 및 기존 출간된 자료의 아카이브 작업을 통한 각 지역 문화사업 아이템 개발 및 문화기획 역량 강화

*** 문화가족 한마당**

경기도문화원가족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문화일꾼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및 경기도 지역문화 네트워크 강화

*** 경기도 청소년 리더 캠프**

청소년 리더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사전, 세종실록 지리지, 농사직설, 훈민정음 등 세종의 업적과 저작물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서 세종의 애민(愛民) 정신 및 소통의 리더십 체득을 통한 세종의 가치재고

*** 어르신 문화 축제 "요즘 할매 요즘 할배"**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사회적 인지도를 확대하고,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축제

두 번째 이야기, 가평문화원의 문화가중계

우리도 좀 논다! 그까이꺼 재즈!

10월 26일, 한참 행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진행팀을 만났다. 올해 10월은 유난히 하늘도 맑고, 햇볕도 따스한 히 좋았는데, 하필 공연이 진행되는 날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니 진행팀의 손길은 더 바쁠 수밖에 없었다.

비 소식으로 분주할 수밖에 없는 진행팀이 야외 공연이 가능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동안, 공연의 한 부분을 맡아주기로 한 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의 정택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땅에 밟힐 정도로 포스터를 붙였는데, 군청에서 모두 떼어버렸다는 하소연이었다. 혹시라도 홍보 미흡으로 힘들게 준비한 행사에 오점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이 전화한통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번 행사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지역문화 시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문화활동의 가능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혹은 좋은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펜션들의 영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평을 찾지만, 실제로 가평은 문화소외지역이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만 봐도 이것은 가평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행사이다. 가평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페스티벌은 가평에서 상주하고 있는 단체가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가평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페스티벌 기간 중 반짝 들어온 외부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새롭게 써내려가는 가평주민의 삶의 이야기

가평이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해서 가평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들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은 타 지역 사람들보다 크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단체가 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이다. 기본적으로는 가평문화원의 제도적 도움으로 악기를 구입하고, 연습할 공간을 제공받고 있다. 이홍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역시 생활음악협회 중심에 문화원이 있다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간혹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없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비전도 발전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까지 지원한 게 아까워 다시 지원을 반복하지만,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 이 생활음악협회는 다행히도 문화원의 제도적 지원 아래 그들 스스로 발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더니 이제는 17개의 동아리로 확대되었다. 어리게는 고등학생부터 70대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만큼이나 장르도 다양하다. 색소폰, 난타, 기타, 밴드 등 장르별·세대별로 오밀조밀 모여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의 공연에 협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팀의 장점 중 하나이며,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다 보니 어느 행사에서도 불러만 주면 OK이다. 거기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네 친구이자 선·후배들이니 한 마음 한뜻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다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모양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들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낼 힘이 부족하다. 그저 음악이 좋아 모인 단체일 뿐 전문적으로 기획을 배우거나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무대에 오를 기회가 많지도 않다. 17개의 동아리가 있다 보니 무대에 설 기회만 생기면, 서로 무대에 오르겠다고 보이지 않는 눈치작전을 펼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저 그들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공간, 그들의 음악을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들은 힘닿는 데까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음악협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글두레 문학회'의 이야기이다. 행사 당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얀 고무신'이라는 노래가 재즈 선율에 멋진 여자 보컬의 목소리로 연주되었다. 서희네 분식집, 하나로 마트, 삼거리 건널목 등 가평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길 이름, 가게 이름이 귀에 들려온다. '글두레 문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영숙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단다. 18년의 시

간동안 가평 지역을 '시'라는 문학적 언어로 만들어 왔다고 하니, 그들의 글 속에서 가평의 삶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더구나 그 삶의 이야기에 음악을 붙이니 그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되어 새로운 추억을 그리게 되었다. 아마 누군가는 이 날의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다.

가평, 구 역사를 다시 만나다.

2010년 새 가평역사가 선을 보이면서 그 이후 단 한 번도 구 역사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역사 내 화장실도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그런 공간이 이 사업을 위해 처음 오픈되었다.

구 역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을 누린 가평 주민, 비속에서 공연을 치루지 않아도 된 진행팀, 흔쾌히 문을 열어주신 코레일 관계자들 등 이 행사는 기적과 소통으로 가득 찼다.

전문가의 손길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시작한 일이 오히려 진행자가 더 많은 걸 배우고 돌아가는 장이 되었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즐기고 함께 박수쳐주는 모습 속에서 서로가 큰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통의 시간들을 거쳐 왔는지가 눈에 보인다.

최근 폐 가평역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던 가장 중요한 것은 가평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삶의 이야기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즐거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안에는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한 대안적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미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러한 점에서 폐 가평역이라는 대안적 문화공간과 가평문화원, 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 글두레 문학회, 코레일 등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낸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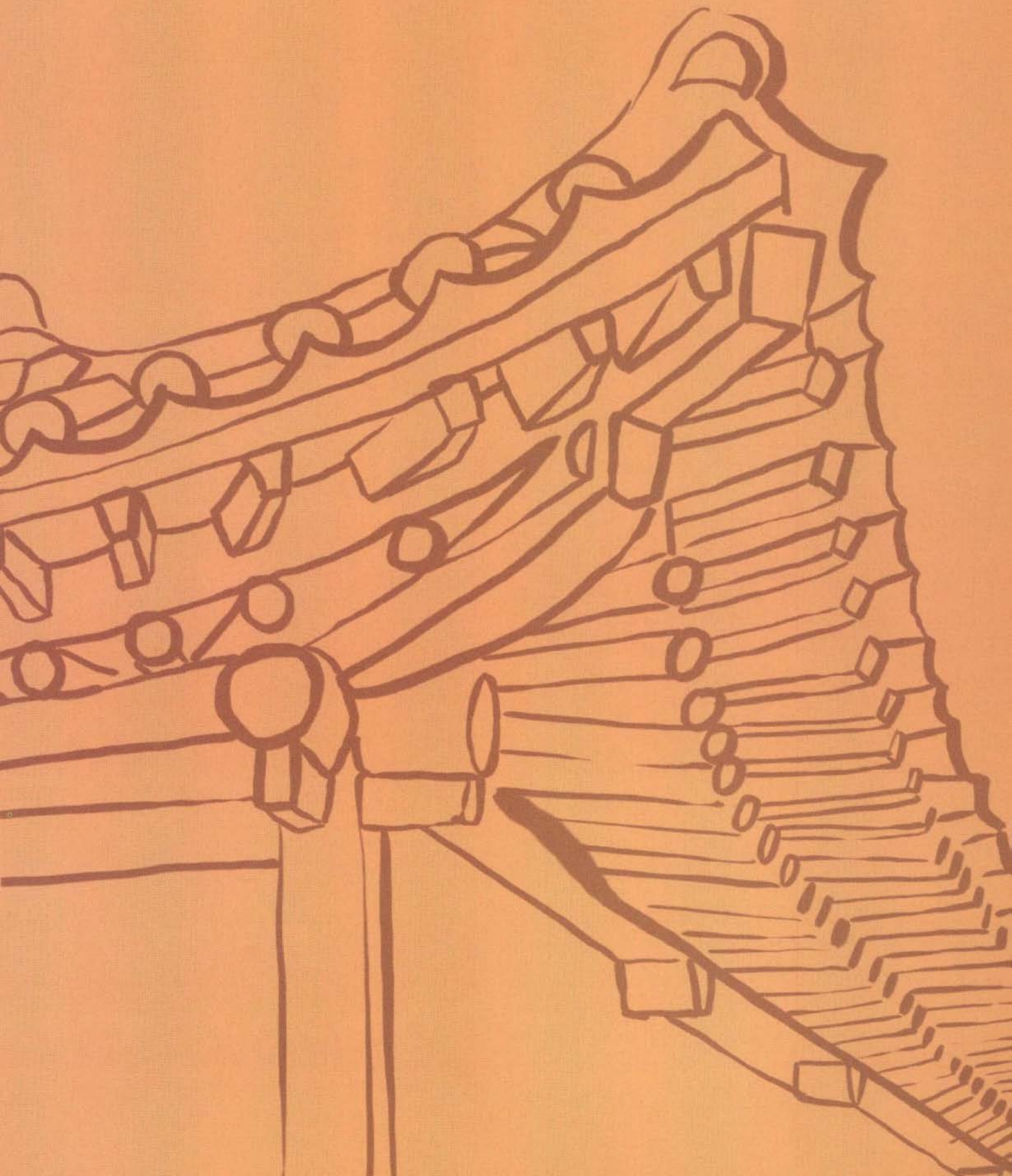
그까이꺼 Jazz

재즈

편집자 주)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란?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음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공감대를 확장하고자 진행되는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으로 동네와 마음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예술 프로젝트, 혹은 동네와 마음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한 국 문 화 의 중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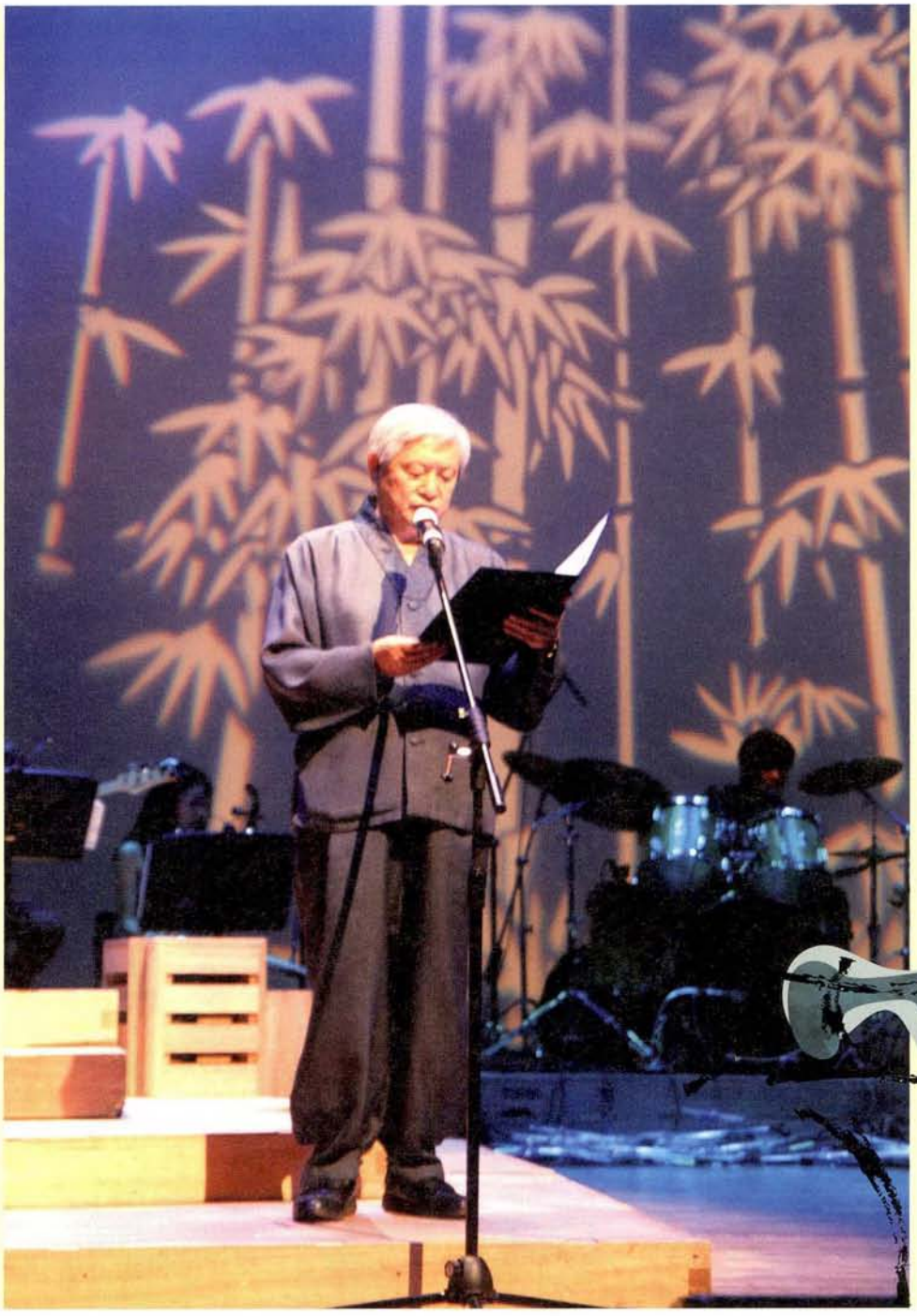
경기문화저널

경기도 문화인물을 만나다

문화원장님의 하루_수원문화원장 염상덕
나는 문화활동가다_고아름(평택) 정민정(남양주) 이병권(시흥) 황수근(평택)
지역문화행정가_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양원모
문화원 지킴이_광명문화원 아키모

중용(中庸)을 아는 덕(德)장

수원문화원 염상덕 원장을 만나다



지방문화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그 지역의 문화적 현주소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인터뷰는 지방문화원원장이 진단하는 현재 문화상황을 통해 지역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글 편집자 주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특히나 공무원이란 직업은 마음의 무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질 때 문제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추를 바로 잡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추를 바로 잡는 일! 그것은 오랜 세월 훈련과 마음의 수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전에는 문화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들어와 보니까 주부들이 방 한가운데 모여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요즘 시대에 누가 바느질을 해서 옷을 입나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 얘기를 하고, 삶을 나누더란 말입니다.

인구 100만을 훌쩍 넘는 수원시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선 사람으로서, 그는 문화를 권력의 상위개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달관한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을 하고, 무에 그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순박한 눈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서랍장 가득 옷을 넣어놓고 수선해 입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어딘가가 헤졌다는 이유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에 오지 않았다면, 나 역시 무감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문화원이니까 저런 것이 남아있는 거지, 다른 곳에는 없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문화원장이 되어 몹시 다행스럽다는 표정이신데, 무엇 때문인가요?

은퇴 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사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괜찮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죠.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도 방송과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

그때 생각하면 참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속에 '문화예술'이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뛰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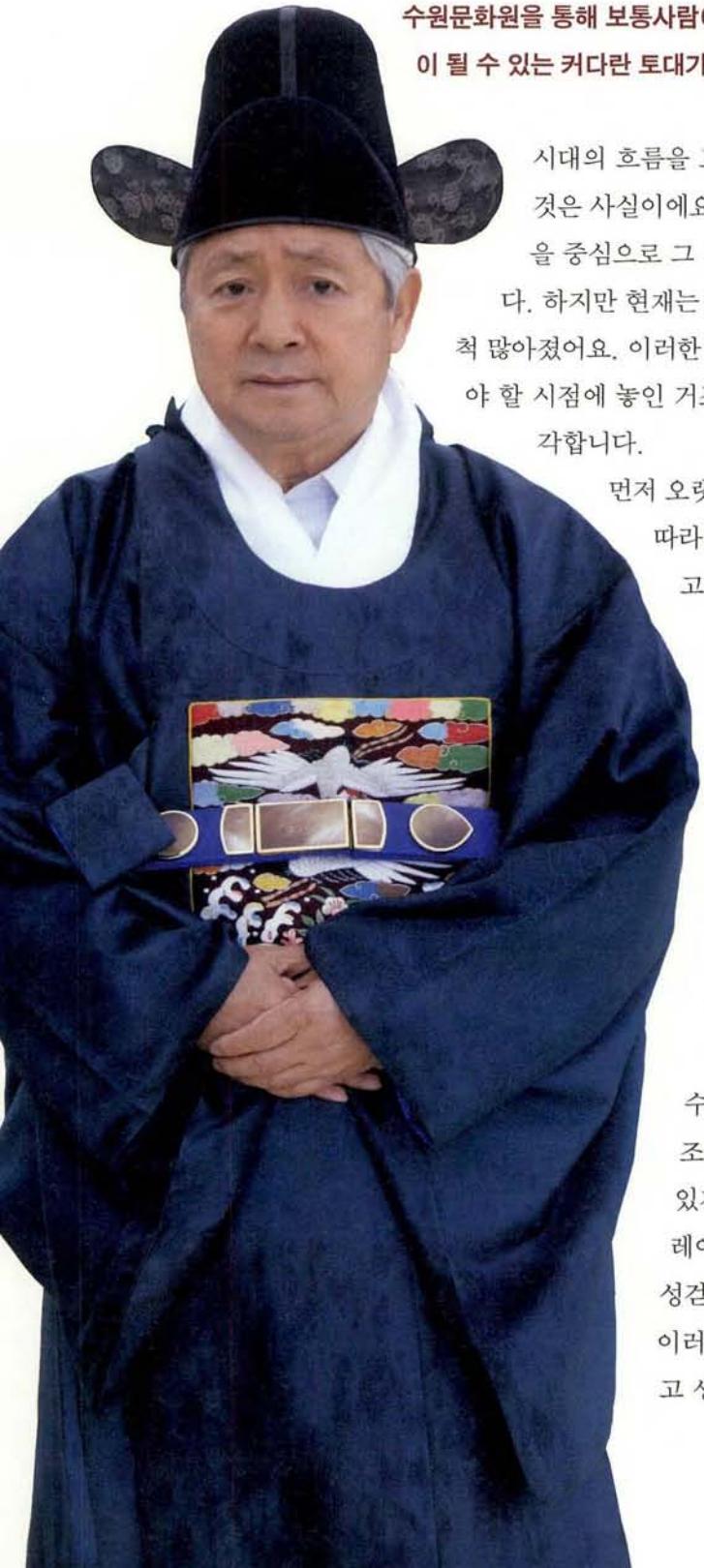
저는 그동안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라 수원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장이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찌 보면 그리 거창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소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소박한 꿈과 성실한 삶의 자세가 수원시민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일 테니까, 자랑스럽게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창한 구호와 높은 지향만 난무하는 시대에 묵묵히 현재의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의 자화상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

수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뿐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단연 역사문화의 도시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수원을 움직이는 힘이 문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미약하나마 나의 열정과 능력을 수원의 문화예술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생각에서 그칠 수도 있었겠지만, 운이 좋게도 이러한 생각이 실현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균형 있는 문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까지만 해도 가장 원초적 권력인 군사력이 세계를 움직였고, 남북시대에는 경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었다면, 지금은 문화가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가 권력인 문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외부로 발현되는 가능성, 그 자체를 내적인 힘으로 본 니체처럼 결국 현재 혹은 미래에 세계의 흐름을 움직이는 내적인 힘은 곧 문화가 될 것입니다.

문화원장은 이러한 문화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문화원을 통한 시민교육을 통해 문화시민을 양성하고 그런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다보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원문화원을 통해 보통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그것이 구현된 수원 문화가 경기도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다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수원문화원뿐 아니라 많은 문화원이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는 각 시군구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담당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문화예술센터, 구민회관 등 문화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곳이 무척 많아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원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도 문화원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지역의 문화 일을 해온 노하우가 있으며, 다른 문화단체가 따라 올 수 없는 우수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갖고 현대의 문화 흐름에 맞는 문화원 고유의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하며, 문화회원이 갖는 힘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새로운 모습의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은 인구 115만을 자랑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큰 도시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인문학을 표방하는 도시로 어우러지는 환경,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문화원에서는 철저한 고증과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풍부한 문화소식과 함께 흥미 있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수원문화원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 3박4일간 진행되는 '정조대왕능행차길체험순례'를 비롯해 지금은 수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시연, 시민퍼레이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어요. 작년부터 시작한 '짚신신고 화성걷기' 역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요.

이러한 성과에는 문화적 자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이것을 우리

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모두 함께 알고 지켜 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수원문화원이 갖고 있는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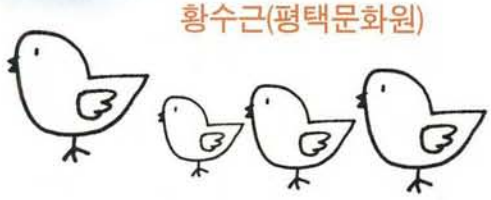
공무원은 민원상대가 중심이지만, 문화원은 단순히 민원을 해결해 주기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시민들의 고단한 삶의 바닥까지 접근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문화원에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말씀도 잊지 않는 순박한, 그리고 온화한 얼굴을 가진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한다.

"처음 문화원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곳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소중하게 가꿔야 하는 곳에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 져요."

나는 문화활동가다

경기도 문화원 영파워 4인과 함께한 이야기

고아름(평택문화원)
정민정(남양주문화원)
이병권(시흥문화원)
황수근(평택문화원)



문화원에는 어르신들 밖에 없다.

어르신 문화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과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대부분이 중년 이후, 어르신들이기는 하다.

문화원 직원들도 나이가 많다.

대부분의 문화원이 직원 1~2명, 국장 1명, 원장 1명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높기는 하다. 그래도 20대 직원들 많다. 30대 초반 직원들도 많다.

문화원이 젊어져야한다.

무엇이 젊어져야 한단 말인가!

지역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문화원이다. 지역과 함께 세월이 흐름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 문화학교 어르신들 맘은 청춘이시다! 스마트폰도 쓰시고, 온라인 카페 활동도 하신다. 할머니들의 소녀 같은 맘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 어르신들 섭섭하게 그런 말 말아라! 나이가 다는 아니지 않나.

직원들?

앞서 말했지만 문화원에 2030 직원들 많다.

그들은 청소년기에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소비하던 '서태지 세대', 'HOT 세대'이다. 여가시간엔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소비한다. 그래도 대중문화보다 지역문화가 더 재미나서 문화원에서 일한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며 'IMF세대', '88만원 세대' 또는 '삼포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친구들이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려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문화원에 입사했다.

그들은 모험심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요즘의 그냥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다.

남양주문화원 정민정 : 이젠 읍면동단위로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강좌가 운영되니 주민들이 문화원까지 올 필요가 없다. 문화원에서 하던 강좌나 유사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도 시행되면, '문화원은 차별성 있는 것을 해라' 라고만 하니 매번 새로운 것을 고민해야한다. 아이디어가 막 샘솟으면 좋겠다.

시흥문화원 이병권 : 한류라고 하며 대중가수의 인기 혹은 드라마 수출을 성과로만 치켜세워준다. 그리고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실제적인 인프라 구축은 안 되고 있다. 연합회가 있기는 하지만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문화원들의 연대 사업이 필요한 것 같다. 대안 교육 쪽에서는 교육기본권 즉,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도 문화기본권, 문화복지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시흥도 시흥문화원 인근에 체육문화센터가 생겼고, 그 쪽에서 체육 외의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차별성 있는 강좌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평택문화원 고아름 : 다른 곳들도 그러겠지만 평택문화원은 일이 정말 많다.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밤늦도록 퇴근 안한다고 야단이시다. 이 정도로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 바쁘고,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주말에 진행하느라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희를 위해준다는 뜻으로 외부 공모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 몸이 피곤하지만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뿌듯하고 감동받을 때도 있다.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과 도와주겠다는 말이 더 듣고 싶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문화원 직원들이 모

이면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하소연을 나누곤 한다. 표현은 힘들다 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문화원에 대한 애정이 있다. 문화원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있고 싶은 곳이니까,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정말 싫으면 진작 그만뒀을 꺼다. 이렇게 애정을 가진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연수에서 만났는데 1년 뒤에 '그 직원 그만뒀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다.

남양주문화원 정민정 : 예전에는 문화원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수준이 변하고, 문화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기획을 요구해서, 문화원 일은 하면 할수록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흥문화원 이병권 :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입직원 교육 필요하다. 당장은 실무교육이 중요하지만 신입직원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전훈련, 문화원 직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다. 지방 문화원은 작은 규모이지만 경기도 문화원, 전국 문화원은 큰 조직이다. 이 큰 조직의 직원들이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면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직원 연수나 직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기는 힘들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 문화원 직원들과 자주 만나기 어렵다. 권역별 모임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평택문화원 황수근 :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문화원에 직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크고, 일을 잘 하고 있고, 예산이 많아 사업이 많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직원이 많은 문화원의 한 구성원으로 보면 일에 대해서 논의할 동료가 있다는 것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은 같이 고민하고, 신나는 일은 함께 즐길 수 있다.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가 있으면 자극이 된다. 그래서 더 의욕이 생긴다. 특히 또래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다보면 시야가 더 넓어진다.

남양주문화원 정민정 : 직원들의 경력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 경력과 직급에 필요한 학습을 집중 교육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의실에서의 이론수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례 연구 수업은 현장에서 진행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와 닿을 것 같다. 강사는 주로 기획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기획자의 입장에서만 사업을 보게 된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나라면 저런 부분을 활용했을 텐데', '우리 지역에도 저런 게 있는데,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등, 강사가 이야기 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더 좋은 점은 현장을 봄으로써 관광객 또는 주민으로서의 입장도 느낄 수 있다. 이래서 이 사업, 축제가 재미있는거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난 답사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특히 관광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소한 동네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의 팸투어는 흥미로웠다. 혹시 향토 답사 장소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강릉의 팸투어 추천하고 싶다.

평택문화원 고아름 : 직급별 교육, 신규 직원 교육 중요하다. 또한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자극을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훈련, 문화 정책 흐름이나 문화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국장님들은 대상으로 진행했던 워크숍을 직원 대상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민정 팀장님의 말처럼 현장 교육도 필요하다. 합동연수에서 권순석 선생님이 정선의 딱지박물관 같은

사례를 말씀해주실 때 실제 현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면 더 와 닿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강사들이나 커리큘럼이 다양하면 좋겠다. 가만히 보면 강사나 강의 주제도 유행을 따르는 것 같다. 연합회나 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다양한 실무 워크숍을 찾아보는데 2~3년은 비슷한 주제, 같은 강사들이 강의를 한다.
그 밖에도 인기 있거나 향토사적인 의미 있는 축제 현장에도 다 같이 가고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강릉 단오제에 가보고 싶은데, 평택도 단오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매년 놓치고 있다.
그런데 연합회나 지회에서 좋은 교육을 마련해도 직원들이 오지 못하면 소용없다. 평택 같은 경우 한 명은 꼭 가려고 한다. 다른 지역들은 직원이 한 명 뿐이어서 그런지 못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택문화원 황수근 : 실무에 매달리게 되면 어느 순간 혼란이 온다. 문화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문화 기획자인지, 운영자인지 회계담당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래서 나를 중심에 잡아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문학 교육, 철학교육, 비전훈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와 관련된 교육도 실무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다. 문화원에서 잘 하지 못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놓고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냐. 작년에 향토사료 전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관람객이 몇 없어서 속상했다. 홍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탓이기도 하다. 요즘엔 SNS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과 홍보, SNS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제는 사업공모제안서에 대한 것보다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

시흥문화원 이병권 : 역사 전공이라 문화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사해보니 생각보다 문화원의 역할이 크고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거기에 비해 문화원의 존재, 역할과 성과는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 같다. 문화원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평택문화원 황수근 :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이 경매싸이트에서 팔리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발간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매품이기 때문에 즉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서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 소문을 듣고 책이 팔리

고 있는 경매싸이트를 직접 봤을 때는 황당하고 속상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힘들게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책인데 누군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 같아서이다. 그런데 그 책은 누군가에게는 비매품이라도 돈을 지불하고 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향토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만드는데 세금을 쓰냐고 한다. 어찌 보면 그 경매싸이트가 우리가 향토사 관련 사업을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시흥문화원 이병권 : 학생이었을 때 향토사 자료가 필요해서 지방문화원에 찾아갔던 적이 있다. 문화원에 직접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 직원들도 친절하고 필요한 자료도 쉽게 제공해 주지만, 겉으로 보이는 문화원 서고는 닫힌 공간처럼 느껴졌다. 문화원만큼 향토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도 없다. 향토사료관을 대중에게 공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갖춰야하고 인력이 들어가야 하지만 향토사 특화, 전문 기관으로서 향토사 아카이브를 만들고, 자료를 보급, 공유하는 일은 해야만 하는 일 같다. 덧붙여서 문화원들이 문화해설사 양성사업을 하는데, 문화해설사 외에도 향토문화컨설팅, 향토문화 기획자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남양주문화원 정민정 : 문화원에서 일을 하면 지역을 잘 알게 된다. 정말 구석구석 잘 알게 된다. 이런 저런 지역 사람도 많이 알게 된다. 왠지 난 '남양주네이버지식인'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애향심도 생긴다. 내가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좋은 장점은 없는 것 같다.

평택문화원 황수근 : 전국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좋다. 답사를 갈 때 미리 해당 지역 문화원으로 문의를 하면 반가워하시고, 관광책자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쪽 직원들도 정민정 팀장님처럼 그 지역 지식인이니까 말이다.

나도 이제 지역사회에 대해서 쪼~~끔, 아주 쪼~~끔 알게 된 것 같다. 예전에는 경기도 신문도 안 봤다. 이제는 매일 평택 지역신문부터 찾아본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신문에서 평택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행정적인 의미의 거주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된 기분이다.

계속되는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울 만큼 진지하고 재미있다.
젊다. 밝다. 에너지 넘친다. 유쾌하다. 생기있다.
그리고 그만큼 진지하다. 고민한다. 해도 너무 많이 해서 탈이다.
오늘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날아오는 향토발간물 정리하며, 강의실 책걸상을 옮기고, 문화학교 수강 문의 전화를 쉴 새 없이 받은 문화원 직원들에게 '수고했어요. 오늘도' 라고 말하고 싶다.

예술을 통한 관계의 회복

문화 강호,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양원모 팀장을 만나다

이번 기획은 경기도 문화정책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적 방향을 어찌 보면 가장 깊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양원모 팀장의 인터뷰이다. 사실 이번 기획의 핵심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논의와 문화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원의 가족들이 향후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함이다.

점심식사를 앞에 두고 시작한 그의 이야기는 인문학과 예술이론의 결합을 통해 문화영역 안팎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인간과 교육에 대한 생각, '예술로서의 교육(Education as Art)'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지학(人智學)이 한국의 동학사상과 일맥상통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른바 한국의 미래교육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미래교육이다>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그와 나눈 모든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모두 게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기획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담 기록을 싣기로 하고, 본 기획에서 의도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했다.

글 편집자 주

경기도라는 광역 단위에서 문화 사업을 전개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떤 지향과 비전을 통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을 들어본다면....

2004년도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종(種)다양성이 보장되고, 이종교배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이 생성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잡종강세를 통해 공진화(共進化)를 촉진해야 하죠.
'공진화(共進化)'란 쉽게 말하자면 더불어 함께 진화하자는 것인데, 다양한 예술적 지향을 하고 있는 주체들(작가, 예술소집단, 문예동호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렴하며 다양한 작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것이죠.

한편 작가, 예술소집단, 문예동호회의 결합 또는 협력을 통한 활동 못지않게 그들의 단독활동 역시 중요합니다.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로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과정이 있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취약한 영역, 부족한 영역을 채우기 위한 시도도 있어야 할 테고... 결국 문화예술생태계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경기문화재단이 광역단위 문화재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매 번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길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문예지원팀장이라는 포스트에서 보자면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현재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협력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서서 농림수산부, 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의 영역에서도 점차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 도시 재생 사업 등은 문예 진흥을 넘어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까지 시도하며 마을과 도시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작가들과 소집단, 예술단체의 창작역량과 기획역량을 강화하기위한 문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예진흥의 방점은 전문작가 개인과 단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이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역에서는 창작과 발표, 연구와 출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영역은 작품 신작 제작과 발표 중심이기에 기초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재단에서는 심화 응용단계로 두 개의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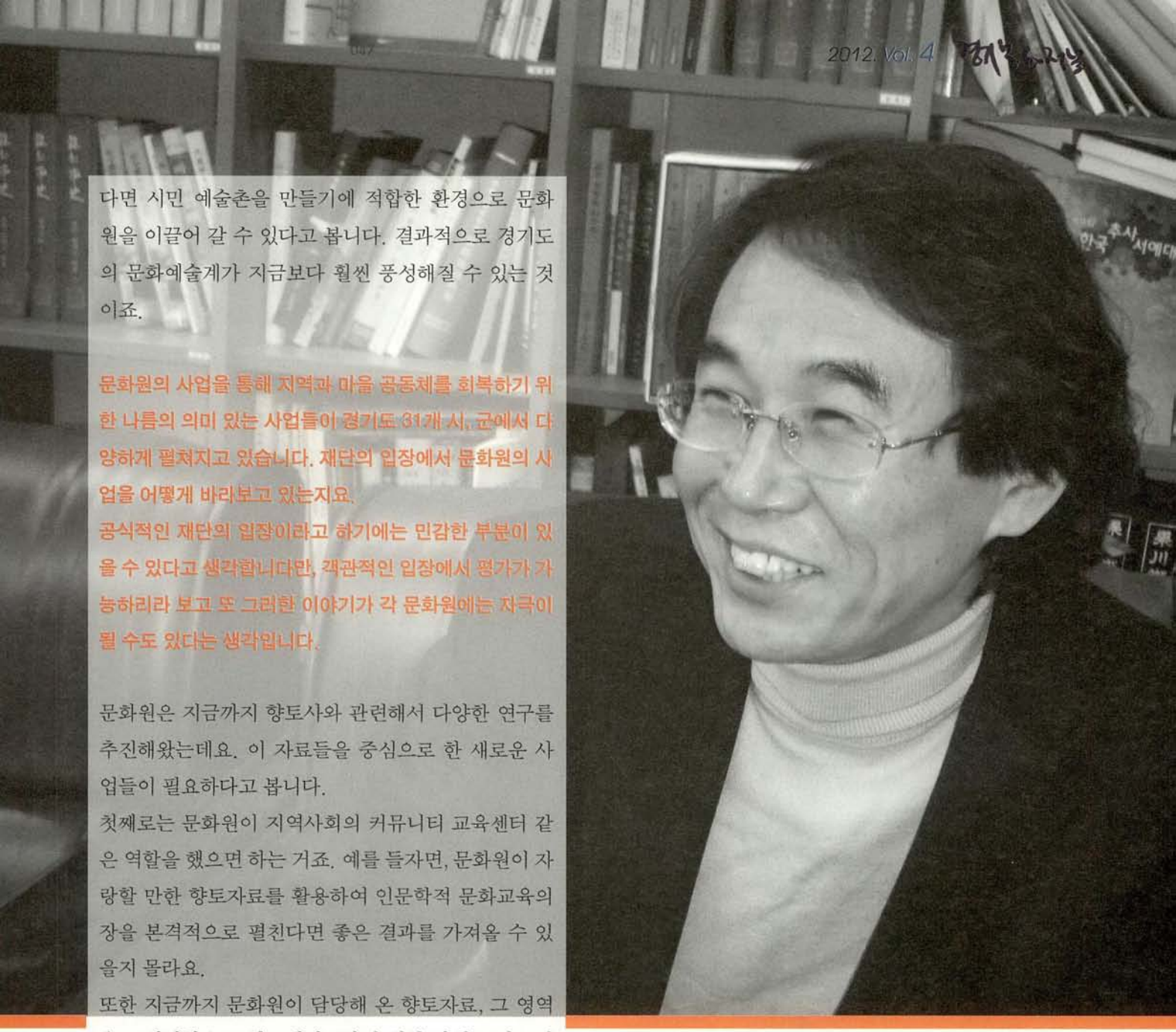
첫째는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예술 프로젝트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경우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에 관심을 둔다면, 문화원을 통해 생성된 문예동아리 연합이 제출한 예술 프로젝트와 문화원과 협약을 맺은 자매 예술단체가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별별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작가주의 지향 예술프로젝트나 지역 틈새 문화공간을 활용한 작가집단의 레지던시 예술 프로젝트, 예술로 잡(Job) 만들기를 모색하는 아트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별별 예술프로젝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충실히 하기에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재단에서 행해진 다양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특히 〈굿 음악제〉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위대한 콘서트〉 등은 재미있게 참여하고 또 관심이 가는 기획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상보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상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간담회나 크고 작은 미팅을 통해 여러 성향의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바람과 지향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바람은 같이 키워가고, 부족한 것들은 함께 채워가며 더불어 가치창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태도는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상호 접촉을 통해 자극하며 촉진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즉 협력, 비평, 격려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비평이 중요한데, 시각예술 영역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비평가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에 반해 공연예술 영역에서는 비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비평을 통해 예술가나 단체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아마도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통한 관계의 회복' 이라는 말이 이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는 큰 핵심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향후 어떤 전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술인 공동체,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재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극마을이든, 미술마을이든, 레지던시 기관이나 미술관, 소극장 밀집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예술촌들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 기금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예술가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져야 하고, 자치정부와 재단은 적정수준의 역할만을 해야 해요.
문화재단에 있는 동안 예술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과정을 열어주기 위한 서포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국 · 공립, 사립기관들은 많지만 민립은 없어요. 지금은 민립기관이 생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별별 여러 가지 예술협동조합의 생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기금 못지않게 컨설팅과 공간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 그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변화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들 역시 이런 점을 잘 활용한



다면 시민 예술촌을 만들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문화원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계가 지금보다 훨씬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문화원의 사업을 통해 지역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의미 있는 사업들이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입장에서 문화원의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공식적인 재단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가능하리라 보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각 문화원에는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원은 지금까지 향토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왔는데요.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문화원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교육센터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문화원이 자랑할 만한 향토자료를 활용하여 인문학적 문화교육의 장을 본격적으로 펼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요.
또한 지금까지 문화원이 담당해 온 향토자료, 그 영역을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작업도 반드시 문화원이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다른 영역들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죠. 실험이라는 단어가 맞을까요? 이런 실험적 시도가 예술가 뿐 아니라 인문학자, 교육자 등 복합구성으로 이뤄진 프로젝트 팀과 결합된다면, 현재 문화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인 '별별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년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마을과 동네로 들어가 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도 문화원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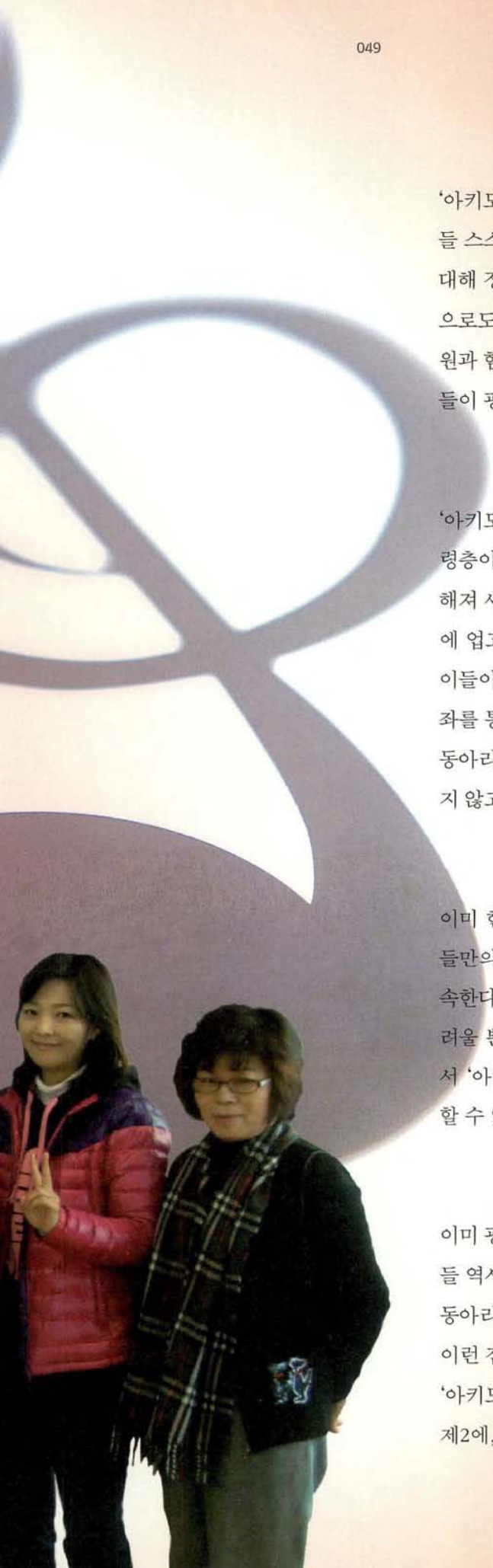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당돌하게도 내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얘기했었다.
"지금 문화에 대한 시대적 담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노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팀장님이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당돌함이었으나, 그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 것은 그에게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사유의 깊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 강호의 고수를 더 만나고 싶다.

문화를 밝히는 아줌마들의 인생이야기

-광명문화원 '아키모'-

문화는 특정인물, 특정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이 문화에 그대로 묻어난다. 흔히들 세대차이가 난다는 말을 한다. 이는 물리적 나이의 차이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여기 '아키모'라는 동아리가 있다. '아줌마 기타 모임'이란다. 처음은 문화원을 통해 처음 통기타라는 악기를 만났고,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온 몇몇의 아줌마들이 만났다. 그리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때로는 사람들이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다. '통기타'라는 매체를 통해 함께 웃고 즐기는 동안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악기를 배워가는 성취감과 더불어 새로운 추억을 함께 공유한다.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새롭고 즐거운 삶이다. 이제는 문화원 없이도 그들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원을 떠나지는 않는다. 문화원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곳에서 또 다른 큰 꿈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아키모'는 이미 TV와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유명동아리이다. 이미 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들 스스로 '아키모'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아키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현재 2팀의 '아키모'가 광명문화원과 함께 하고 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하여 많은 이들이 광명문화원을 통해 '아키모'의 멤버가 되었다.

'아키모'는 문화원을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여러 연령층이 함께 있다 보니 젊음과 삶의 지혜를 함께 공유한다. 이것에 열정이 더해져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냈다. 비록 처음은 문화원이라는 기관을 등에 업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들 스스로 크게 빛나는 별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문화원을 떠나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지는 않다. 문화원이 교육 강좌를 통해 새로운 회원들을 교육시키고, 일정 수준의 수업을 수료한 이후에는 동아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은 동아리 홍수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만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한다. 그들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오래가기는 쉽지 않다. 그들 스스로 세워 나가야할 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키모'는 문화원이라는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에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미 광명뿐 아니라 서울 몇몇 지역에서 또 다른 '아키모'가 활동 중에 있다. 그들 역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아마도 문화원 같은 제도적 지원이 동아리 운영에 얼마나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31개 시, 군의 많은 동아리들의 비전 역시 밝다.
'아키모', 그들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에 큰 박수를 보내며, 문화원과 함께 제2에, 3에 '아키모'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INTERVIEW

왜 '아키모' 를 선택하셨나요?

처음에 광명문화원을 통해 '1인 1악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아키모'를 접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만해도 광명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1인 1악기'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여러 곳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기타를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아키모'를 찾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이 어찌나 꼼꼼하시고, 정확하신지... 이론 수업부터 정확하게 배우다 보니 웬만한 이름 있는 학원보다도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인연이 계속되면서 지금에 이 자리에까지 있는 거고요.

아키모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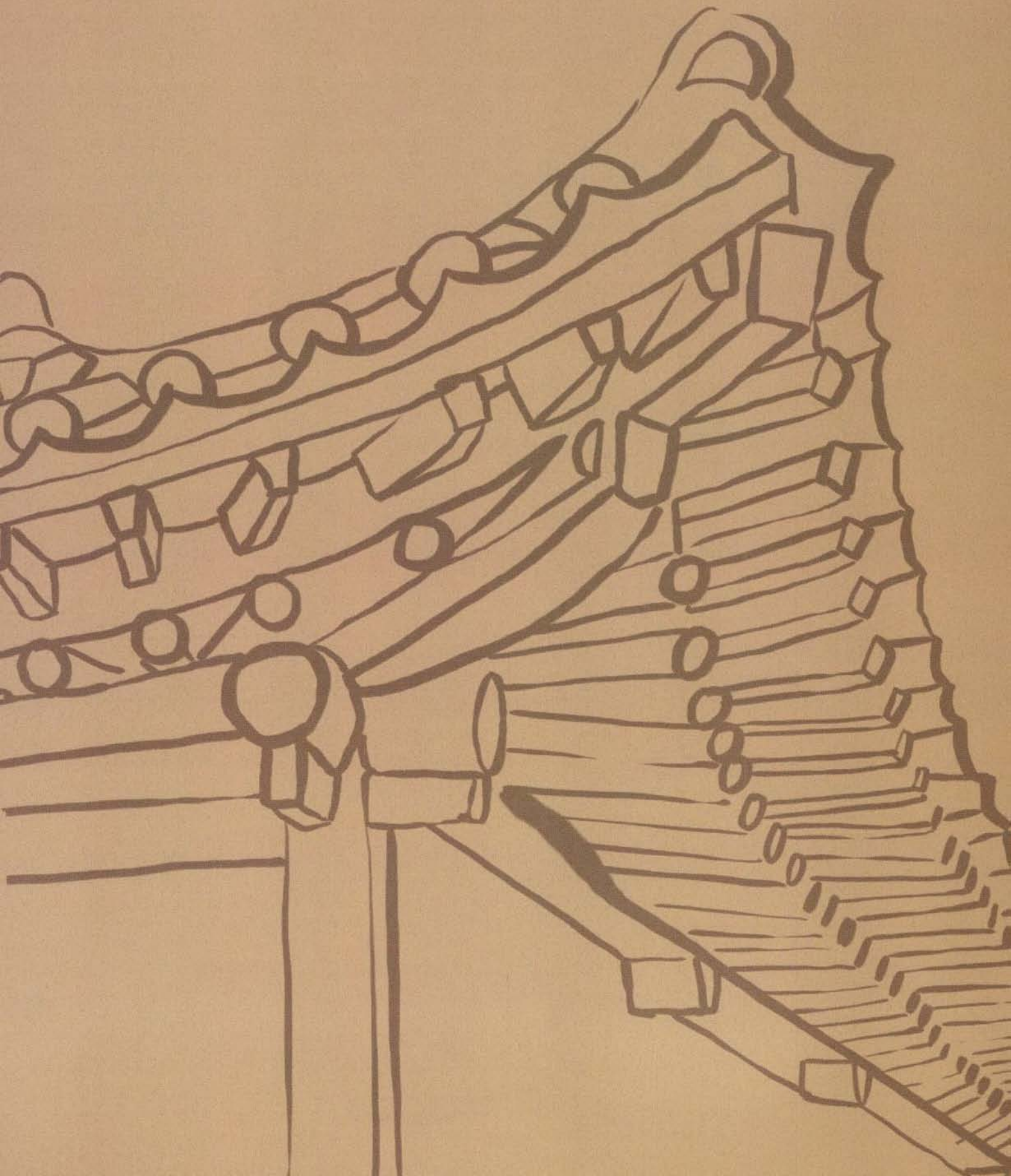
'아키모'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아마추어 동아리라는 점이예요. 솔직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악기 하나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건지 몰라요. 그렇기에 저희가 이곳에서 배운 것을 봉사를 통해 보답하려고 해요. 가끔 외부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연주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면 '아키모' 전체로 봤을 때는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 혹은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저희는 순수하게 음악을 통해 본인들 스스로가 기쁨을 얻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모여 서로 연습하고, 아키모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서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키모의 큰 장점이자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거죠

'아키모' 활동 중에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키모' 활동을 통해 자신감도 올라가고, 가족들의 응원도 있으니까 아쉬운 점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봉사를 다니다 보면, 저희처럼 재능 기부하는 방식의 봉사활동을 놀다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능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10분의 무대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오랜 시간 연습한 노력의 결과물이죠. 저희들의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힐링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만, 가끔은 이런 면에서 좀 더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되요.

앞으로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봉사계획을 세워 실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2팀의 동아리만이 있는데요.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아키모'를 통해 웃고, 즐기는 곳이 되었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 아키모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 항상 열정으로 똘똘 뭉친 회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국 문 화 의 중 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역사문화 및 해외문화 사례연구

역사문화기행 1.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고양역사문화여행

역사문화기행 2. 호국의 길 따라가는 김포문화기행

해외 사례연구_캐나다_추운 겨울, 즐겁게 이겨내기 -퀘백 얼음 호텔을 중심으로-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고양역사문화여행

류연일(고양문화원 사무국장)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고양 지역은 역사의 중심에 서 왔다. 5000년 전의 볍씨로 밝혀진 가와지 볍씨는 이곳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를 시작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가 하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고양지역의 주인이 되면서, 북한산성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3.1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고, 행주산성에서 임진왜란 당시 권율 도원수의 기상을 느껴볼 수 있다. 첨단과 아름다운 자연을 아우르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고양시에서 태어난 사람이건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이주한 사람이건 시민들의 만족도나 자부심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고양시는 국내외로 연결되는 교통 요지인 만큼 찾아오는 코스도 다양하다. 전철은 3호선과 경의선 전철이 북한산성,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호수공원, 킨텍스, MBC 드림센터, SBS제작센터 등을 연결시켜 준다. 승용차 이용 시에는 제1, 2 자유로와 통일로, 수색로,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의선 행신전철역은 KTX의 출발 또는 종착역으로서 전국을 연결하고 있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지척이어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등도 각광을 받고 있다.

고양시 여행은 몇 가지 테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여행은 당연히 역사문화여행이지만, 고양시에는 다양한 여행코스가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간단한 소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체험여행 : 도농 복합도시이며, 국제꽃박람회의 도시답게 허브농장, 곤충 농장, 어린이천문대, 야생화, 선인장, 치즈, 버섯 등 다양한 녹색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다.

먹거리 여행 : 80년대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던 그 낭만을 고스란히 간직한 풍동 애니골, 행주산성 장어마을, 젊음이 넘치는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서오릉 한식촌 등이 여행객을 유혹한다.

박물관 여행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농심테마파크에서 한반도 최초의 5000년 전 볍씨 등을, 중남미문화원 박물관의 중남미 역사유물, 목암미술관, 증권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을 둘러보면 된다.

공연 전시 : 동양 최대의 전시장인 킨텍스(KINTEX), 호수공원 앞의 MBC 드림센터나 탄현동의 SBS제작센터에서 공개방송 현장이나 드라마 제작 현장을 견학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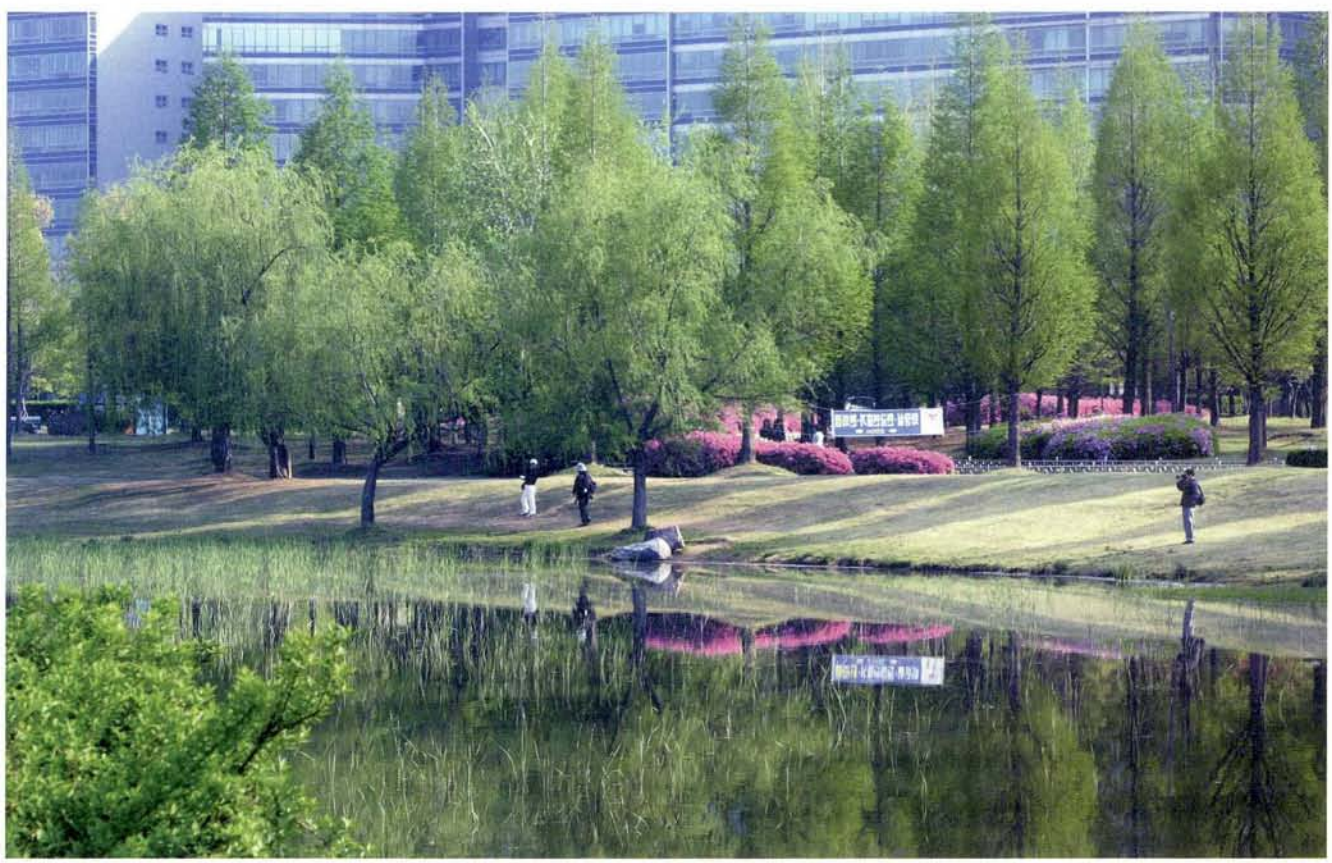
다. 아람누리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회나 전시회가, 어울림누리에서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연극 공연이 이어진다. 호수공원 안으로 들어오면 신한류 홍보관과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노래하는 분수대 공연(겨울철 휴무)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 원사로 꼽히는 고양문화원을 볼 수 있다.

이제 비로소 고양시의 역사문화여행 코스를 둘러 볼 순서가 되었다.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 중 빼 놓을 수 없는 몇 가지만을 꼽는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과 서삼릉,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북한산성, 그리고 행주대첩의 현장인 행주산성을 들 수 있다.

서오릉과 서삼릉

서오릉은 통일로, 불광역, 연신내 등에서 서오릉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단골 봄, 가을 소풍지이며, 4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가족 나들이 코스로 사랑 받고 있다. 구리시의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왕조의 왕실 묘역으로 세조대왕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로서는 태조와 아버지인 문종이 묻힌 동구릉 보다 더 왕기王氣가 승勝한 길지를 찾아야 자신의 후손들이 왕위를 다시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경향 각처를 샅샅이 뒤져 찾아낸 길지가 바로 서오릉이라 한다. 경릉(덕종과 소혜왕후), 창릉(예종과 안순왕후), 명릉(숙종과 인현, 인원왕후), 익릉(숙종비 인경왕후), 홍릉(영조비 정성왕후)의 5개 왕릉이 있고, 순창원, 수경원, 그리



고 장희빈의 묘인 대빈묘가 있다. 특히 홍릉은 영조대왕이 먼저 떠난 정성왕후 옆에 자신이 묻히기 위해 자리를 비워 놓았으나 자신은 동구릉에 묻힘으로써 지금까지 한쪽이 비어 있는 기이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오릉 주변에는 갈비집과 서로가 원조임을 내세우는 다슬기해장국집 등 맛집들이 즐비하여 점심 걱정이 없다.

식사를 마쳤다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소로 애용되는 서삼릉으로 출발한다. 서삼릉은 서울 근교에서는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가족 나들이 코스로 사랑을 받고 있다. 농협대학에서 서삼릉까지 약 1㎞의 은사시나무길, 원당 종마목장의 드넓은 초지 위에서 뛰어 노는 말들의 이국적인 풍경 등은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숨어 있었다니…" 하는 탄성이 절로 나게 할 만큼 아름답다. 하지만 서삼릉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문화재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왕자, 공주, 빈의 묘소와 태실 등을 이곳에 이장함으로써 3릉(왕, 왕후) 3원(세자, 세손, 빈) 45묘(왕자, 공주) 54태실(임금이나 왕자, 공주의 태胎를 묻은 묘실)로 조선왕조 최대의 왕실묘역을 이루었으나 이는 조선 왕릉의 권위를 가족묘로 격하시키려는 간계에 의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골프장, 농협대학, 목장, 종마목장, 군부대 등으로 이리 저리 잘리고 찢겨 나가 130만평에 이르던 서삼릉은 겨우 7만평에 못 미치는 규모로 축소되었다.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이지만 경치는 여전히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명승지이다.

북한산성

북한산성은 백제 개루왕 때 처음 축조되었다. 삼국의 각축장답게 백제, 고구려를 거쳐 신라의 영역이 되면서 진흥왕이 세운 북한산 순수비가 비봉 정상에 세워졌다. 고려 시대에는 몽고나 거란과의 전쟁 시 격전지이기도 했고 조선 숙종 때에 현재의 모습으로 축조되었다. 단순한 북한산 국립공원 여행이 아니라 역사문화여행이라 해도 북한산성 탐방은 등산코스일 수밖에 없다. 가는 길은 3호선 구파발역에서 버스로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북한산성 안내소에서 대동문이나 용암문을 거쳐 약 1시간가량 올라가서 동장대에서 능선을 따라 굽이굽이 물결치는 북한산성을 둘러보면서 2천년 가까운 세월을 더듬어 볼 수 있다. 동장대는 대장군의 지휘소였기에 북한산성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능선을 따라 축조된 40리의 성곽 밑에서 백제 개루왕 때의 산성의 흔적을 상상해보고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개보수에 참여했을 백성들의 애환을 그려보고, 동쪽으로 서울 시내를 보면서 만경대에 올라 한양 땅의 기틀을 잡았다는 무학대사의 혜안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북서쪽에 어슴푸레한 개성 땅을 보면서 고려 태조 왕건이 개성에서 건너다보았을 삼각산(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을 그려 보고, 남서쪽으로 비봉 정상의 진흥왕 순수비(물론 비는 보이지 않지만)를 보면서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신라 화랑들의 칼바람 소리를 들

으려 귀를 기울여 본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북한산성 입구에 원효봉과 의상봉이라는 두 개의 봉우리에 이름을 남겼고 백운대 정상에는 3.1 운동 암각문이 새겨져 있다. 노적봉에는 임진왜란 당시 지혜로 왜군을 퇴각시켰다는 밥할머니의 전설이 얽혀 있고 계곡 깊숙한 곳에는 행궁지를 비롯한 숙종 때의 외세 침략에 대비한 궁궐과 군사 시설들이 여기 저기 주춧돌을 남겨 놓았으며, 산영루는 다산과 추사를 비롯한 선비들이 시서화詩書畵를 즐기던 정자로 고양시에서 복원 추진 중이기도 하다. 능선을 따라 쌓여진 성벽을 일주한다면 노련한 등산인도 쉽지 않은 코스이기에 동장대에서 2천년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산성으로 떠나기로 한다.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승용차가 아니라도 서울의 김포공항이나 고양시 화정역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 쉽게 갈 수 있다. 한강변에 우뚝 솟아 있는 덕양산은 해발 125m에 불과하여 입구에서 약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정상에 이를 수 있는 야트막한 산이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왜 이곳에 삼국시대부터 토성이 있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 이곳에 진을 진 조선군을 향해 왜군이 총공격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동쪽으로는 서울시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한강이 서해를 향해 흘러간다.

북쪽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들판 사이로는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들이 적당히 섞여 있어 도농복합도시 고양시의 면모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남쪽으로 깎아지른 벼랑 밑으로 한강이 휘돌아간다. 행주대첩을 계기로 조선은 한양을 수복했고, 왜군은 한양을 버리고 경상도 쪽으로 퇴각하면서 화친조약을 도모하게 되었다. 정상에는 행주대첩비가 우뚝 서 있다. 행주대첩비는 선조 때 세운 구비(舊), 헌종 때 세운 중건비, 1970년에 세운 재건비가 있는데 정상의 비는 재건비이다. 부분 복원된 삼국시대의 토성을 따라 걸어 보고, 대첩기념관에서 신기전, 화포, 화차와 행주대첩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권율 도원수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충장사, 권율 도원수의 동상, 충훈정이라는 국궁장이 있다. 해마다 1월 1일 새벽에는 고양시의 해맞이 행사가 행주산성 정상에서 열리고. 2월에는 행주대첩제, 5월경에는 행주문화제가 열린다. 주변에는 장어를 비롯한 맛집들이 있고,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국수집이 있다. 날이 어두워 졌다면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가벼운 마음으로 호수공원으로 향해도 좋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코스로 꼽힌 호수공원 산책길과 자전거 길에는 젊음과 건강이 넘친다. 여름에는 여기 저기 에어로빅과 브레이크댄스, 통기타 공연 등이 벌어지지만, 하얀 눈 덮인 겨울 호수공원의 산책길은 꿈속에서 본 듯한 색다른 경험이 된다. 근처의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사이에서 생맥주 한잔으로 목을 축인다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멋진 여행으로 고양시를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호국의 길 따라 가는 김포문화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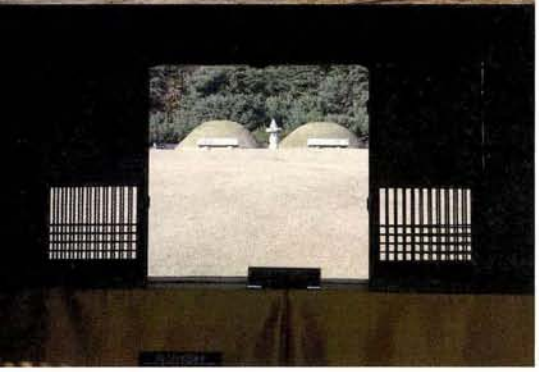
김종훈(김포문화원 전문위원)

오천년 역사의 벼 재배지이자 수도 서울을 지키는 관문 김포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도시로 조선 후기 외세의 입김이 거세게 불어 닥칠 때 서울을 향하는 길목으로 방어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더욱이 지금은 한강 하구에서 북한과 마주보고 있어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포는 '평야'와 '쌀'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곳이다. 지금도 쌀의 유명세가 대단하여 '김포금쌀' 상표는 밥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다. 예로부터 '북으로는 한강 하류에 임하여 토지가 평평하고 기름져 백성이 살기 좋은 곳'이었고, 벼가 익을 무렵의 적정 온도와 일교차도 꼭 들어맞아서 논농사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김포 통진읍 가현리에서는 약 4천 년 전의 탄화볍씨가 출토되어 이곳 김포가 벼 재배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에서 강화도가 있는 서해를 향해 비쭉이 튀어나온 반도 형태인 김포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김포를 탐방하고자 하는 투어는 서울과 김포를 가르는 천등고개를 지나 강화를 향해 가는 48번 국도를 따라 동에서 서쪽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48번 국도를 따라 김포에 들어서면 먼저 김포시청 뒤 북성산 자락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조 왕릉의 하나인 장릉이 위치해 있다. 장릉을 견학한 뒤 48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김포가 낳은 구국의 인물인 중봉 조헌 선생의 동상이 있으며, 동상을 지나쳐 중봉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들어가면 조헌 선생을 기리는 우저서원이 나온다. 다시 되돌아 나와 48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우회전하여 한강하구 쪽으로 들어가면 민족의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인 애기봉이 나온다. 다시 되돌아 나와 김포반도 끝에 이르면 강화대교 건너기 직전 오른쪽에 문수산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 조선 시대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던 문수산성이 있다. 문수산성 견학 후 김포 평화누리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김포반도와 강화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염하강 기슭에 고려시대 말기 몽고의 침입을 피해 강화로 건너가던 때의 전설이 담겨있는 손돌의 묘가 있고, 바로 이웃하여 외세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덕포진이 있다. 김포탐방 순서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자.



장릉(章陵)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元宗 : 추존 왕)과 부인 인헌왕후 구씨의 능이다. 원종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으로 인빈 김씨의 소생으로 선조 13년(1580)에 태어났다. 광해군 즉위 후 왕의 박해로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셋째 아들 능창군이 역모에 몰려 죽임을 당한 후 홧병으로 광해군 11년(1619년) 40세로 사망하였다.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한 후 왕으로 추존되었다. 인헌왕후는 능안부원군 구사맹의 딸로 13세 때 원종과 결혼하였다. 인조반정 후 원종과 함께 왕후로 추봉되었다. 인조 4년(1626) 46세로 사망하였다.

원종과 인헌왕후의 묘는 처음에 양주 곡촌리에 있었다가 인조 5년에 김포로 이장하여 흥경원이라 하였고, 인조 10년에 봉릉하여 장릉이라 이름하였다. 장릉은 왕과 왕후의 능을 나란히 두어 쌍릉을 이루고 있다. 능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이 원종, 오른쪽이 인헌왕후의 능이다.

2009년 6월 장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우저서원(牛渚書院)

우저서원은 조선 선조 때의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조헌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인조 26년(1648)에 세워진 서원이다.

조헌 선생이 태어난 집터에 이만춘 등이 서원을 건립할 것을 상소하여 왕명에 의해 세워졌다. 숙종 1년(1675) 우저牛渚라는 이름을 사액 받았다. 1834년 중건되었고 1973~1976년에 전면 보수되었다. 서원은 선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의 유학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은 교육기관이다.

우저서원 내에는 조헌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있다. 또 학생들이 공부하던 강당이 있어서 조선 후기 강당과 사당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서원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 말기 서원의 폐해가 지나치다고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의 서원만을 남겼는데, 이때 훼철되지 않고 남은 서원 중의 하나가 우저서원이다.

조헌 선생의 자는 여식汝式이며 호는 중봉重峯, 시호는 문열文烈이고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중종 39년(1544)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명종 22년 24세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헌은 율곡의 문인으로 관직에 나가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상소를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 사신에 관한 상소를 올릴 때는 지부상소(도끼를 짊어지고 상소를 올린다는 뜻)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선조 22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헌 선생은 충청도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승병장 영규와 합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책임회피에 급급한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 당하고 만다. 조헌 선생은 불과 700명 남은 의병을 이끌고 금산으로 간다.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아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적을 물리치고자 영규와 함께 전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700의병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애기봉(愛妓峰)

김포는 예나 지금이나 서울을 지키는 요새이다. 김포반도의 끝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조강을 이룬다. 조강 옆 산 정상인 애기봉은 입구에서부터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154고지가 바로 이곳이다. 애기봉 정상에서는 전망대가 있어 북녘땅이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애기봉이란 이름은 병자호란 때 끌려간 평양감사를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그리다 죽은 기생 애기의 한이 서려있다고 해서 붙여졌다. 1968년 이곳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애기의 한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한이 같다고 '애기봉'이란 글씨를 써서 비석을 세웠다.
매년 추석 때면 이곳 망배단에는 실향민들이 찾아와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고 통일을 기원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때는 초대형의 트리를 세워 불을 밝히고 있다.

문수산성(文殊山城)

문수산성은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문수산(해발 376.1m)에 세운 석축산성이다. 강화도의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 입구를 지키는 성으로 조선 숙종 20년(1694)에 세워졌다. 문수산은 김포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산성은 김포반도의 가장 북서편, 지리적으로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되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로 입성하는 관문이자 강화와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의 길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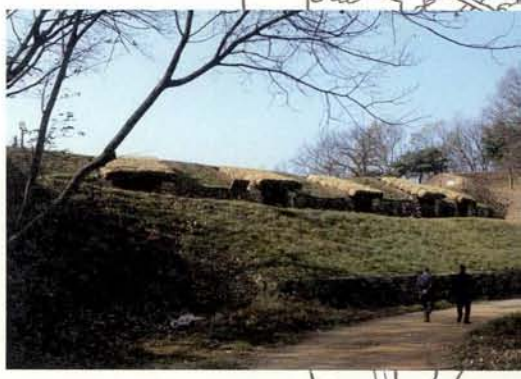
문수산성은 서울로 진입하려는 외세를 막기 위한 관문으로서 중요시 되었으며 강화도에 대한 방어와 강화도를 거쳐 내륙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군의 내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고, 이 전투로 성내의 민가와 성벽, 문루가 파괴되었다.

문수산성은 문수산 정상부에서 해안 쪽으로 뻗은 능선을 이용하여 세워진 성벽과 해안에 접하여 축조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성의 총 길이는 6.2㎞, 둘레는 약 2.4㎞이며 면적이 약 64,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산성이다. 평면 형태는 동서 방향이 장축인 장방형 형태이며,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이다.

현재는 해안쪽 성벽과 문루는 거의 파괴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산등성이를 따라 성벽 일부분만 남아 있다. 남문은 새로이 복원되었다.

덕포진(德浦鎭)과 손돌묘(孫乭墓)



덕포진 포대는 서해로부터 서울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대로, 강화를 마주보고 있는 손돌목의 천혜의 지형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조선 선조 때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종 3년 병인양요 때와 고종 8년 신미양요 때 서구 열강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격전지로 역사적 가치와 유물사적 의의를 가진 곳이다.

1980년 이 지역의 발굴 조사에서 돈대지와 함께 포를 쏠 때 필요한 불씨를 보관하고, 포병을 지휘하던 장소인 파수청을 확인하였다. 당시 포탄 7발과 상평통보 2점이 출토되었고, 건물지에서 주춧돌과 화덕 자리가 발견되었다. 또 돈대터에서는 고종 11년(1874)에 만들어진 포와 포탄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을 마친 후 포대와 토성을 정비하고 돈대지와 파수청을 복원하였다. 2007년 새 단장한 덕포진 유물전시관에는 포의 위치와 포의 유효거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굴된 포를 전시하고 있다.

포대는 해안을 따라 구릉처럼 길게 토축하여 이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개별 포대를 설치하였다. 토성의 전체 길이는 70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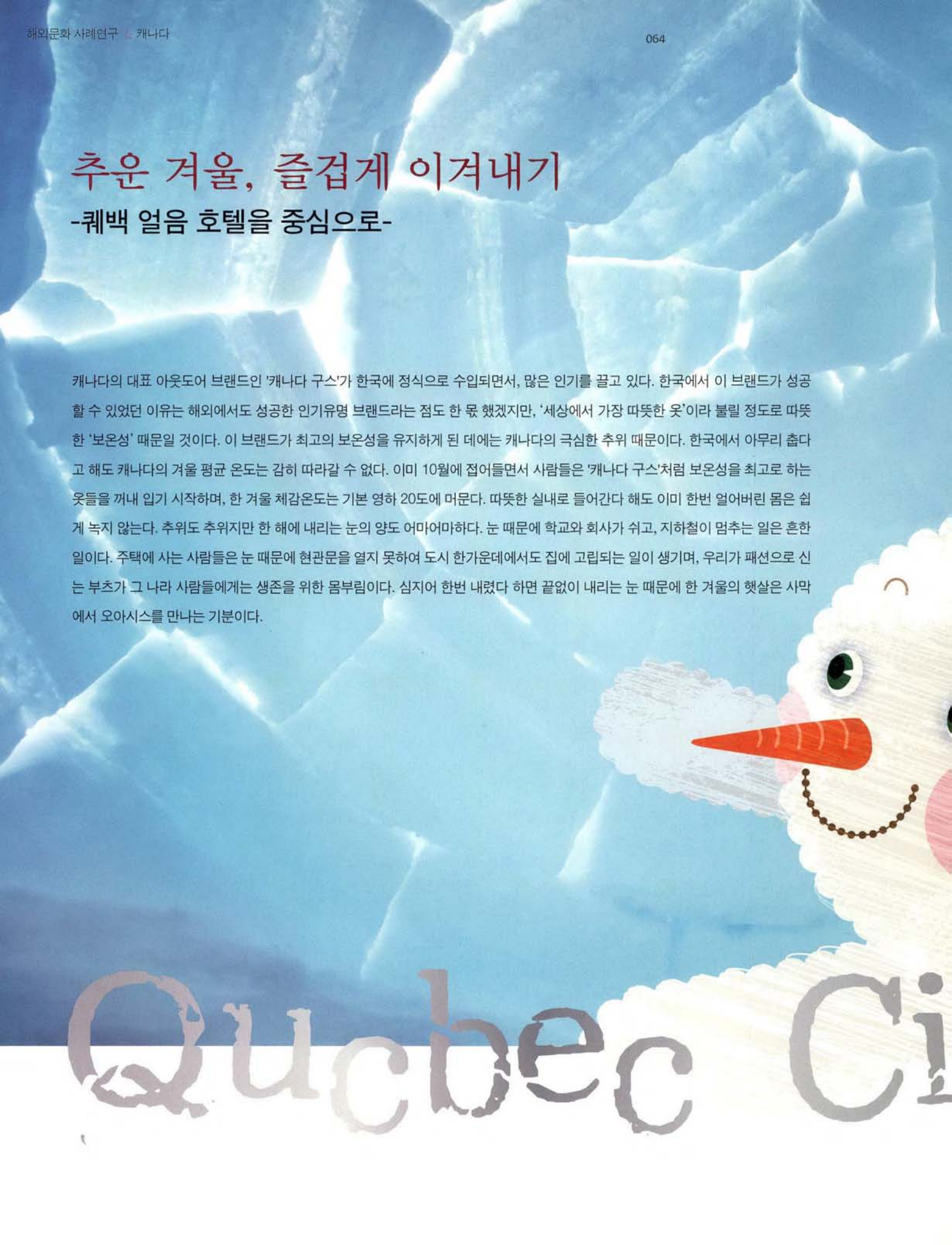
덕포진 끄트머리에는 고려시대 때의 뱃사공인 손돌의 묘가 있다. 손돌은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피난 갈 때 뱃길을 잡은 뱃사공이다. 손돌의 인도로 염하를 건너던 고종은 험한 물길에 불안을 느끼고 손돌의 목을 베었다. 손돌은 물 위에 작은 바가지를 띄우고 그 바가지를 따라 배를 몰아가면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죽음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왕은 자신이 경솔하였음을 깨닫고 손돌을 후하게 장사지낸 뒤 사당을 세워 억울하게 죽은 그의 넋을 위로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 말까지 손돌의 넋을 달래는 제사가 그곳 주민들에 의해 지내오다가 일제강점기 동안 중단되었다. 그 뒤 1970년부터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으며 1989년부터는 김포문화원 주관으로 손돌의 기일인 음력 10월 20일에 진혼제를 지내고 있다.

김포의 슬로건은 'BEST GIMPO(김포)'이다. BEST, 김포를 방문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여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김포로 떠나보자!

추운 겨울, 즐겁게 이겨내기

-퀘백 얼음 호텔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인 '캐나다 구스'가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이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에서도 성공한 인기유명 브랜드라는 점도 한 몫 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옷'이라 불릴 정도로 따뜻한 '보온성' 때문일 것이다. 이 브랜드가 최고의 보온성을 유지하게 된 데에는 캐나다의 극심한 추위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무리 춥다고 해도 캐나다의 겨울 평균 온도는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이미 10월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캐나다 구스'처럼 보온성을 최고로 하는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하며, 한 겨울 체감온도는 기본 영하 20도에 머문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간다 해도 이미 한번 얼어버린 몸은 쉽게 녹지 않는다. 추위도 추위지만 한 해에 내리는 눈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눈 때문에 학교와 회사가 쉬고, 지하철이 멈추는 일은 흔한 일이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눈 때문에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집에 고립되는 일이 생기며, 우리가 패션으로 신는 부츠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심지어 한번 내렸다 하면 끝없이 내리는 눈 때문에 한 겨울의 햇살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이다.



눈의 나라, 퀘백 시티(Qucbec City)

눈의 나라이자 북미의 프랑스인 퀘백 시티는 퀘백주에 자리한 작은 도시이다. 한국에서는 직접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토론토(Toronto)를 거쳐 비행기나 기차, 혹은 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다.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퀘백시티는 '작은 프랑스'라고 불릴 정도로 프랑스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캐나다의 유명한 관광도시이다. 퀘백시티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함께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캐나다와 프랑스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퀘백 시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 시가지, 강가의 로어타운, 구 시가지 서쪽에 펼쳐지는 신 시가지, 세 구역으로 나뉜다. 도보로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도시이며, 도보가 힘들다면 '칼레슈라' 불리는 관광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퀘백시티는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캐나다인도 관광 오는 유명도시로서 소문이 자자하지만, 9월의 단풍시기가 지나면, 관광객의 발길은 점차 끊기기 시작한다. 이곳이 과연 캐나다의 유명 관광도시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눈과 추위. 가고 싶어도 현지여행사들이 여행 코스를 만들지 않는다. 퀘백의 추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의 방문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퀘백은 관광도시이다. 추위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다면, 이 곳 사람들은 한 겨울, 아무런 수입도 없다. 또한 오후 3~4시가 되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날씨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집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마저 잃어갈지 모른다. 따라서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퀘백은 겨울 축제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마을 단위의 작은 축제였지만, 지금은 세계적 겨울 축제로 자리 잡으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여행사에서는 한 겨울 퀘백 시티로 가는 여행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한 겨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게 한 것도 눈과 추위이지만, 이 지역의 자랑거리, 관광거리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눈과 추위인 것이다.

눈과 얼음을 친구삼아...

퀘백이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는 이미 설명했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는 한 그 추위를 글로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추위를 생각하든 퀘백의 추위는 그 상상 이상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이런 추위 속에 관광을 간다면, 혹은 비즈니스로 퀘백에 방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눈과 얼음을 친구삼아 하룻밤을 지내는 얼음 호텔(Hotel de Glace)은 어떤가? 퀘

백 다운타운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한 얼음 호텔은 한 겨울을 퀘백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할 특별한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얼음호텔(Hotel de Glace)의 홈페이지〉

2001년 북미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이 얼음 호텔은 이미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거쳐 간 퀘백시티의 랜드 마크가 되었다. 영하 2~30도의 바깥 온도에 비하면 얼음 호텔의 온도는 영하 3도에서 5도 정도로 따뜻하다. 또한 카페나 식당 등 여느 호텔에 뒤지지 않은 부가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특별히 화장실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관광객들을 위한 숨겨진 배려라고 해야 할까?

얼음호텔은 보통 얼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녹지 않는 기간, 약 3개월간만 오픈을 한다. 1년에 오직 3개월만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이 더 많은 수의 관광객들을 이 아이스 호텔로 부르고 있다.[1)]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습도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눈이 이용되며, 금속 프레임을 사용해 최대한 눈들이 단단하게 뭉쳐 질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약 15,000톤의 눈과 500,000톤의 얼음이 사용되는데, 각 벽의 두께는 자그마치 약 1.2M라고 하니 웬만한 건물보다 낫다.

호텔이라는 곳에 걸맞게 이곳은 기본적으로 방(Room)에 충실하고 있다. 총 36개의 기본 이글루 형태의 방과 테마가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음 침대에서

1) 2013년의 경우, 얼음 호텔 오픈 날짜는 2013년 1월 5일~2013년 3월 24일까지로 약 3개월의 기간이다.

자야한다는 불편한 현실에도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다. 이 호텔은 친절하게도 서로 다른 날씨환경 속에서 살아온 관광객들을 위해 이곳에서 편안한 밤을 지내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에 관한 것이다. 혹 겨울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그 곳에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을 위해 이곳은 정말 깨알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소재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옷을 레이어(Layer) 해야 하는지, 옷 외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어떻게 해야 가장 따뜻한 밤을 지낼 수 있는지 미리 공지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많으면 많을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이곳에서는 따뜻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물론 호텔 측은 영하 30도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보온성 강한 개인 침낭을 준비한다. 하지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아늑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면 이들의 안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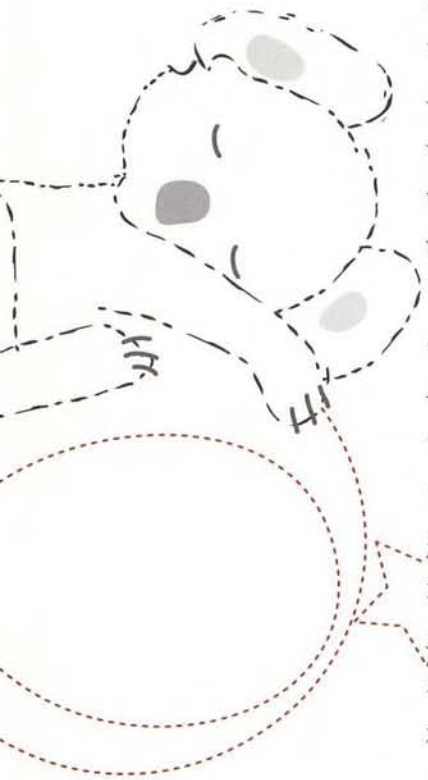
각각의 방은 겨울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와 함께 편안한 밤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다. 테마 방의 경우는 기본적인 형식에 독특한 디자인과 구조가 결합된 방식으로 벽난로나 사우나를 얼음방 안에서 경험 할 수 있다. 이글루 안의 벽난로와 사우나가 어울리기나 하는가?

이곳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는 결혼식이다. 이 호텔에 위치한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결혼식을 꿈꾸는 커플들을 기다리고 있다. 평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을 특별하게 치르고자 하는 젊은 커플들이 이곳을 찾아 색다른 경험을 한다. 이미 전 세계의 150 이상의 커플들이 이 얼음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니, 앞으로도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커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공간이 오로지 숙박, 혹은 결혼식을 위한 평생에 한번 있는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라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벤치마킹 되어 있는 공간, 아이스 바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맥주, 칵테일, 춤, DJ가 함께 하는 이 공간은 사방천지가 얼음으로 이뤄져 있어 가만히 서있는 것만으로도 냉기가 느껴지는 공간이다. 거기에 사람들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잔에 술과 칵테일을 마시고, 얼음 테이블에 모여 수다를 떤다. 물론 두꺼운 패딩 점퍼와 장갑, 목도리, 모자가 온 몸을 감싸고 있다.

어른들이 아이스 바에서 즐거운 파티를 즐기는 동안 가족단위의 관광객, 혹은 어린 친구들은 아이스 미끄럼틀이나 게임 등을 즐기며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만들어 간다. 그 뿐인가? 온통 얼음인 이곳에서 신선한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다. 캐나다의 명물 메이플시럽을 얼음 위에 뿌린다면 즉석에서 가장 신선하고 달콤한 메이플 사탕을 맛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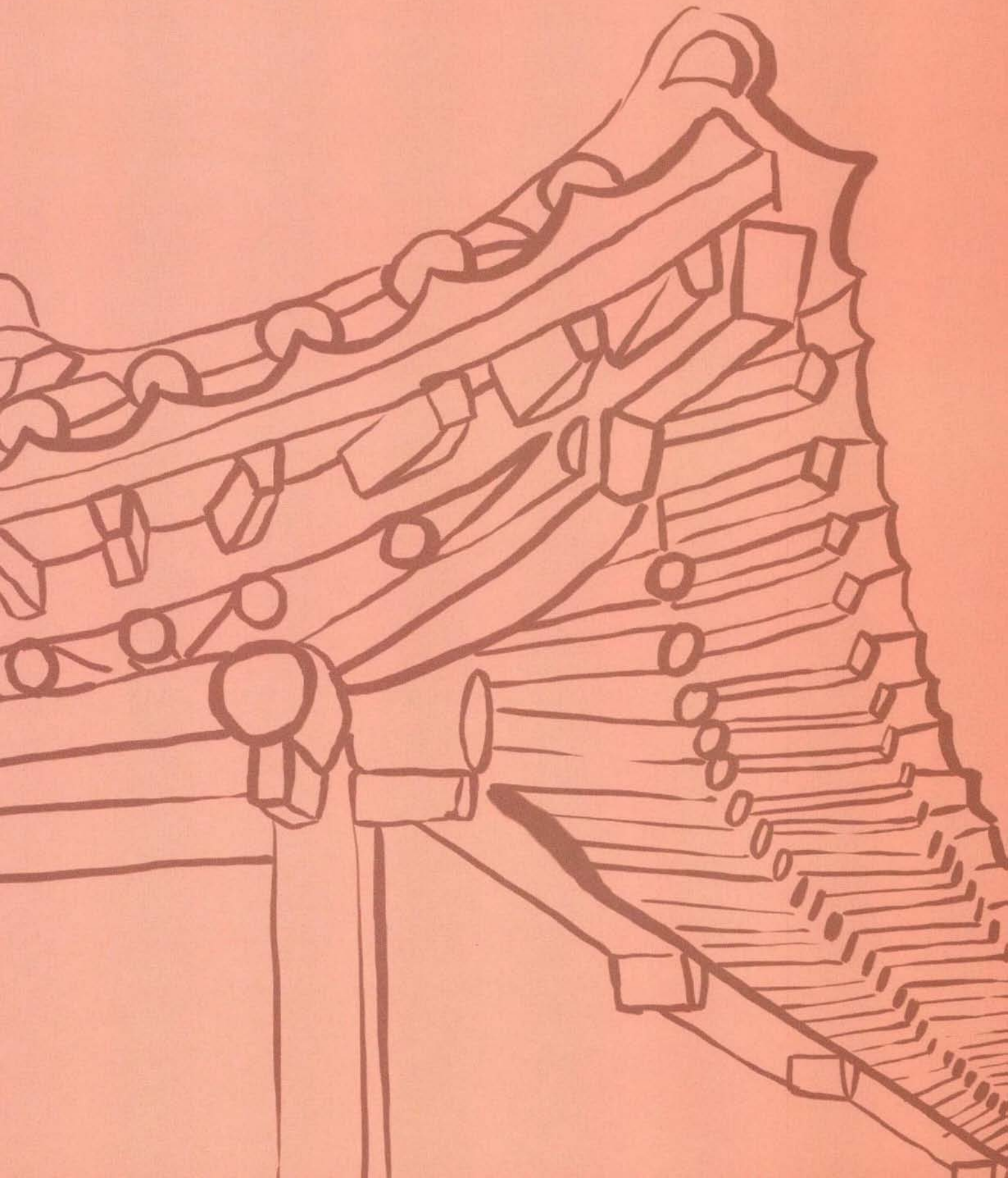


퀘백은 일일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작은 도시이다. 10년 전, 퀘백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겨울마다 심각한 비성수기를 지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얼음호텔로 인해 퀘백 전체가 한겨울에도 관광객들로 들썩이고 있다. 이미 퀘백은 관광도시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얼음 호텔 이후 겨울까지 접수해버렸다. 민간외교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이미지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여러 주변 국가에서 이 얼음호텔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가져다 준 이미지 향상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즉, 이 얼음호텔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

이 얼음 호텔은 약 1개월의 시간이 투자되어 매해 새롭게 건축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60명. 겨우 60명이라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스 호텔 하나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는 약 70여개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호텔 외에 교통, 쇼핑 및 인근지역 관광 등으로 약 80억 원의 관광수입을 올린다. 또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퀘백 윈터 카니발(Qucbec Winter Carnival)을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몫을 하면서, 또 다른 부가적 수입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적 효과에 이어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누리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퀘백 시티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퀘백은 아이스호텔을 통해 1년 내내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관광객을 위한 이들의 서비스 정신은 매우 높다. 이것이 겨울에까지 이어지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의 결과로 그들 스스로가 더욱 발 벗고 지역 발전에 힘을 주고 있다.

점차 한국에도 다양한 겨울 축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자라섬 씽씽 겨울 축제'나 '화천 산천어 축제'의 경우 몇 백 만명의 사람들이 찾을 만큼 인기있는 한국의 대표적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지역에서 이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도 겨울을 공략해야 할 때가 왔다. 퀘백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이스 호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처럼 한국서도 한국을 대표할 겨울 축제와 아이템을 통해 한류의 흐름 속에서 1년 내내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발길까지 끌어들이는 관광의 나라로 발돋움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국 문 화 의 중 심

경기문화저널

경기도지회 소식

제9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9월 21일(금)~22일(토), 경기도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제9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최, 화성문화원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27개 지역이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제8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우승팀인 양주 백석고등학교의 '양주들노래' 시연과 특별공연 '2012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아름다운 동행> 등 다양한 공연이 함께 이뤄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민속놀이체험,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9월 21일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27개 지역이 함께하는 퍼레이드를 통해 경연에 출전한 학생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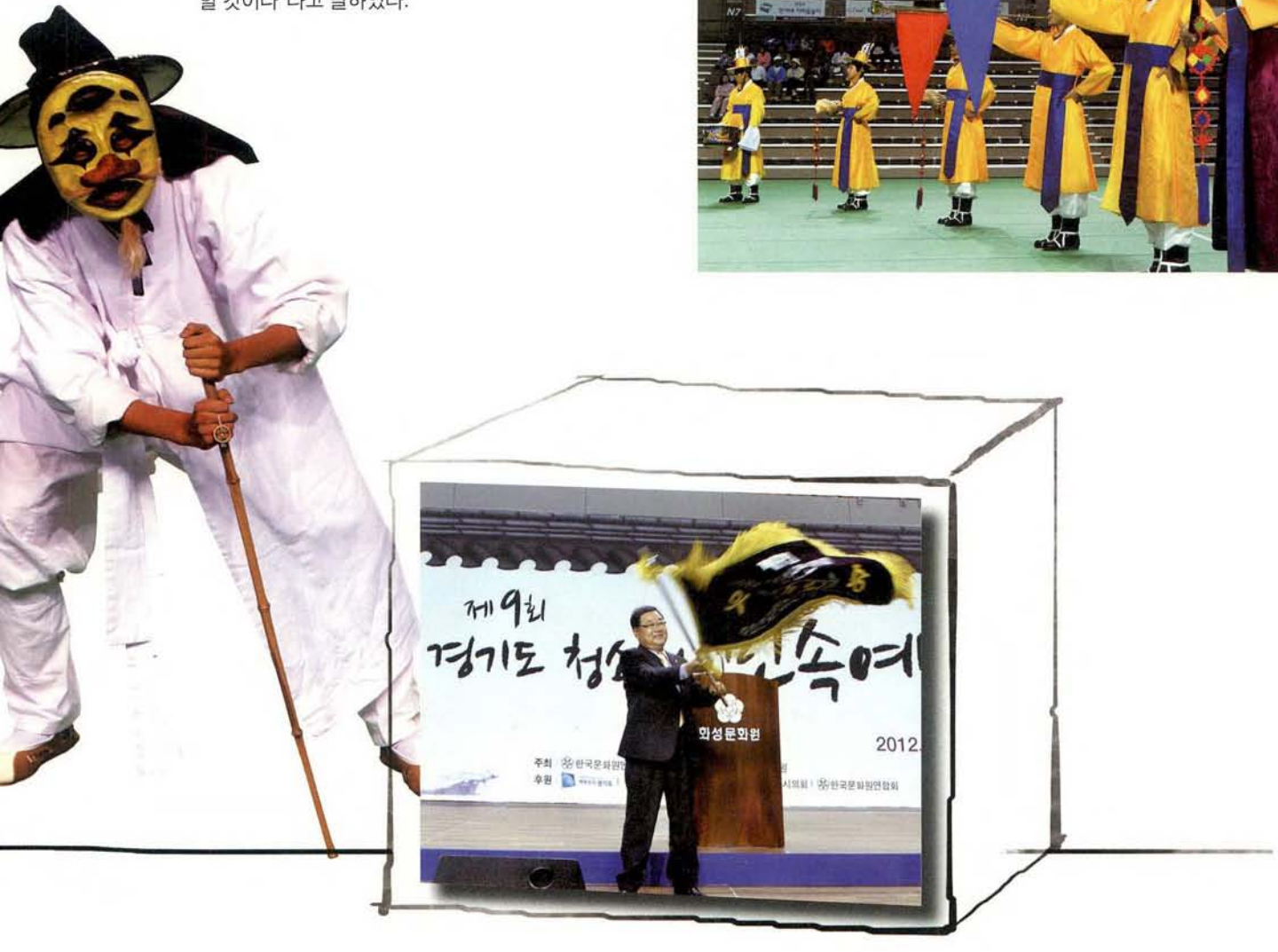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문화원 가족 뿐 아니라 여러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뤄졌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경연자들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 선조들의 삶의 자취인 경기도 민속예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경연을 통해 광주 '광지원농악'은 대상을, 광명 '철산리 쇠머리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를 대표하여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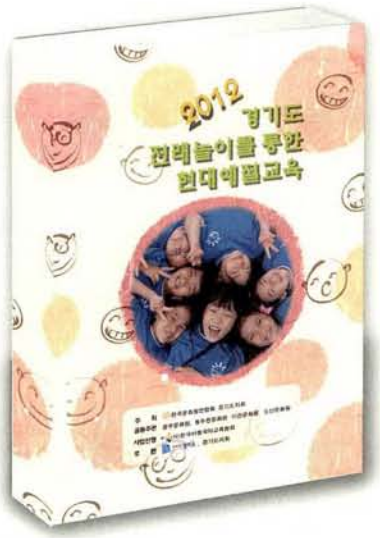
제9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2012.9.21(금)-22(토)
화성종합경기타운

The Kyeonggido Adolescence F Art Festival

정상종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이 경기도의 얼과 뿌리를 재확인하고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그들의 문화적 힘이 지역발전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012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2차년도



2012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교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광주, 동두천, 오산, 이천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2012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 교육이 9개 학교, 유치원 및 문화원에서 이뤄졌다. 9월~11월 중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약 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의 현대 예절 교육을 익히고, 국악실내악 공연 및 전래놀이, 애기장승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및 예절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사업은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가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현대 예절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역할극 놀이□애기장승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때와 장소에 적절한 표현과 격식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익혔으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예절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 관계자는 "비록 짧은 시간에 이뤄진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경기도 시군 문화원 역량강화 사업

경기문화재단과의 간담회(원장단)

경기도 지역 내 31개 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결속력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가 9월 5일 경기문화재단 내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 문화원장단과 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재단 관계자가 함께 한 이번 간담회는 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간의 파트너쉽 구축 방안 논의 및 경기도 문화정책과 교육, 지역활성화 전략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경기도문화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워크숍(국장단)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원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문화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9월 6일~7일 양일간 수원화성 사랑채에서 열렸다. 약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지역축제, 문화정책, 문화예술 교육을 주제로 권순석(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춘아(한밭문화마당 대표)의 밀도 있는 강의가 이뤄졌으며,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경기도 문화원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았다.

제14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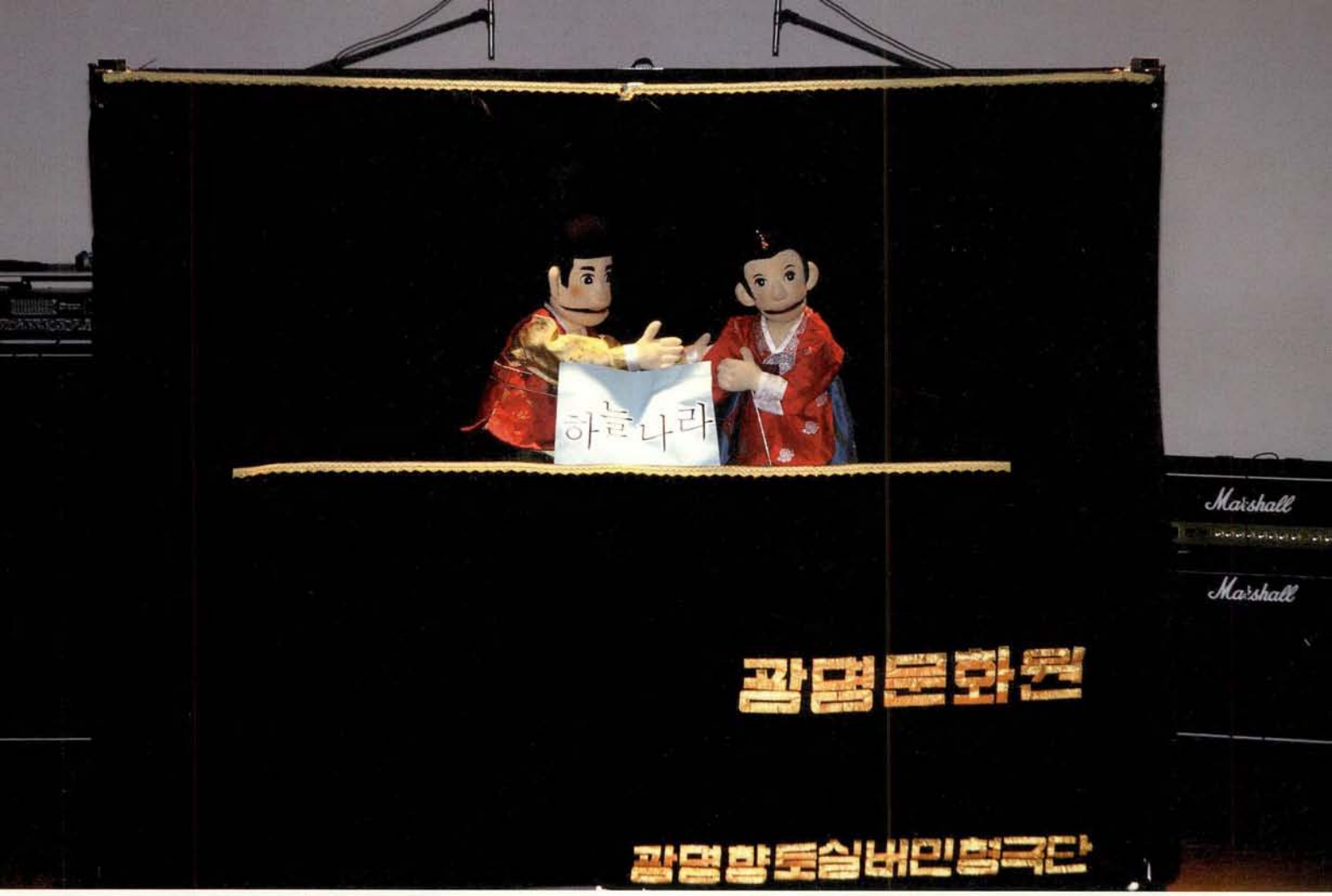
2012년 11월 8일~9일, 경기도 안성시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14번째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가 진행되었다. 31개 시, 군문화원의 임직원 및 회원이 함께 한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문화가족들이 모였으며, 이 시간을 통해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문화정보 교류를 통해 식견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하도록 경기도우수문화원상과 경기도문화인상을 제정하여 14명의 임직원 및 회원과 포천문화원을 시상하였다.
이번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는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 '한국 문화 환경이 변화와 문화원', '사회적 위기가 만들어낸 복지'라는 제목으로 각각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양철모 공공미술가 겸 문화기획자의 강의가 이뤄졌다.

또한 첫째날 저녁시간에는 시흥문화원의 뉴 잉벌로 밴드, 루나힐, 동물원, 송소희, 슬기둥의 무대가 이뤄져 오직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 임직원만을 위한 공연을 진행함으로서 다양한 음악세계를 체험하였다. 특히 경기도지회 운영위원회와 정상종 경기도지회장의 후원으로 문화원 식구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많은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날에는 너리굴문화마을 임계두 대표의 '지역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윤종준 경기 향토문화연구위원,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의 지정토론과 함께한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어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이 가야할 발향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31개 시군문화원 임직원 및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수고하는 임직원 및 회원들만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되어 앞으로 경기도문화원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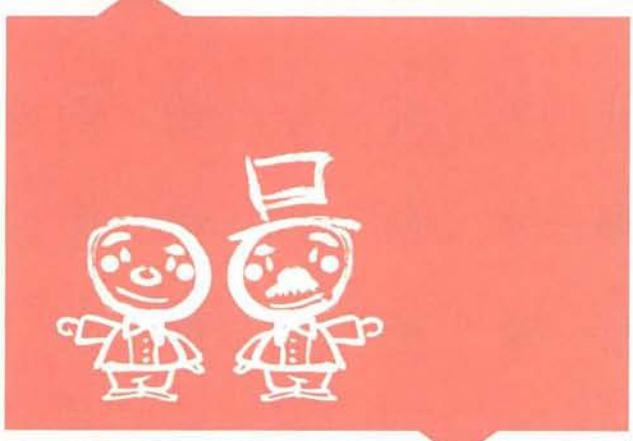
어르신 문화축제 실버 FM 노인스캔들
〈요즘할매 요즘할배〉

12월 13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20개 문화원 21개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어르신 문화축제 실버 FM 노인스캔들 <요즘할매 요즘할배>가 진행되었다. '어르신 문화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 가야할 미래의 문화 주춧돌을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어르신 문화사업'의 연장선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연 14개 프로그램과 전시 7개 프로그램이 함께하였다. 특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연과 전시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자리에 모인 약 180여명의 어르신들을 통해 경기도 시군 문화원의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요 즘 할 매
요 즘 할 배

공연을 통해서는 밴드, 한국무용, 합창, 연극 등의 무대가 펼쳐졌으며, 전시에는 매듭, 노끈 생활공예, 도자기공예, 장승과 솟대, 비누, 지역해설사 등을 주제로 한 전시품들과 체험이 이뤄져 많은 이들의 박수와 관심을 받았다.



참여문화원

프로그램	문화원
푸른연인 무용단	가평문화원
뉴 잉벌로 밴드	시흥문화원
두드려라! 그러면 통할 것이다	안양문화원
건원취타대	구리문화원
포천사랑 실버악단	포천문화원
아코디언 음률따라 즐기는 인생	안산문화원
향토실버인형극단 "여장부강빈"	광명문화원
시니어 창작무용예술단	남양주문화원
김포경기민요합창단	김포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화성춤클럽"	화성문화원
지금만나러 갑니다 '한마음실버밴드'	의정부문화원
연륜가득 마음가득 '춤누리 예술단'	의정부문화원
오산 물향기 실버합창단	오산문화원
장승과 솟대	평택문화원
과천사랑매듭	과천문화원
성남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성남문화원
문화재비누만들기	양평문화원
어르신 집현전	여주문화원
노끈으로 엮는 생활공예	동두천문화원
우리 옷 날개달기	광주문화원
도자명장과 함께하는 실버도예가 양성	이천문화원

AAA HA!

요 즘 할 매 요 즘 할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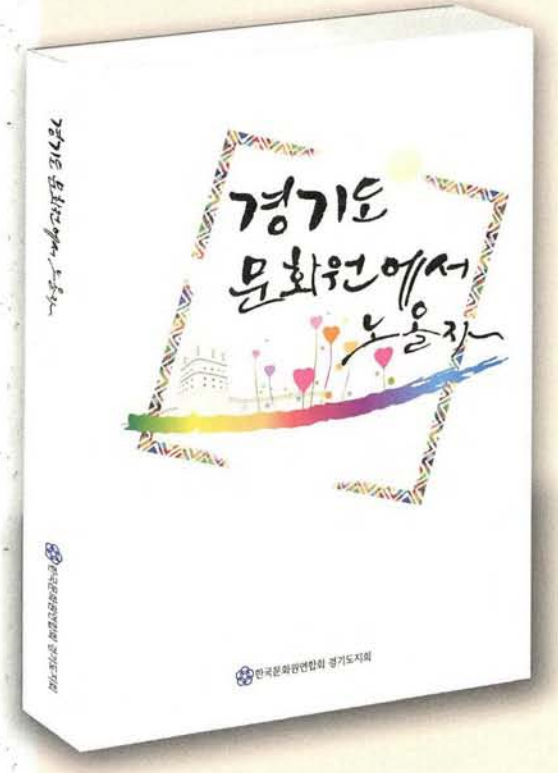
요 즘 할 매

요 즘 할 배

경기도 문화원 사례 연구집 발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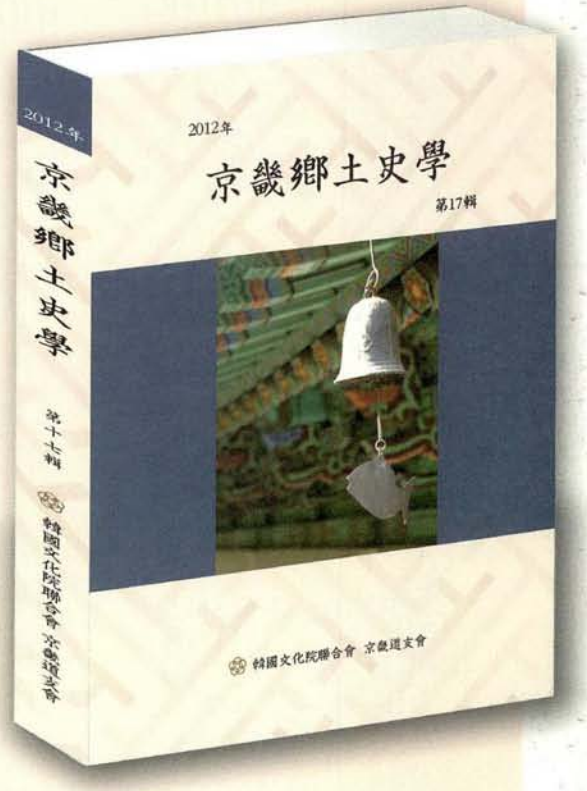
경기도 시, 군 문화원이 주관하는 사업 취재를 통해 경기도 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문화원을 알리기 위한 '경기도 문화원 사례연구집 발간' 사업이 진행되었다.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경기일보와의 협력으로 매 주 수요일 각 문화원의 대표적 사업이 기획기사로 소개되었으며, 각 문화원은 인터뷰와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사업을 지원하였다.

7월 25일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문화원에서 놀자'라는 타이틀로 연속 게재되고 있는 이 사업은 단행본 제작으로까지 이어져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올자』가 발간되었으며, '역사', '문화'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주제로 경기도 문화원의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



경기향토문화 제17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기향토사학』제17집이 발간되었다. 경기도 각 시군에서 추천받은 향토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향토문화연구소는 경기도의 역사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경기도 향토사 저변확대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17집은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인 최무장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위원의 글이 실려 있으며,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한 글들이 집필 되었다.



17 >
ISSN 2234-3350
9 772234 335050
값 5,000원